수원사랑

2015 여름 Vol. 252



SUWON CULTURAL CENTER
수원문화원

수원사랑

제자 : 근당 양택동 (한국서예박물관장)



표지 바람 | 정세학(화가)

서양의 정원과 동양의 상징물(탑)을 배치하여 세계의 화합과
달과 해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를 희망하는 메세지(종이 비행기)를 보낸다.

수원사랑 통권 제252호

발행일 2015년 5월 28일 **발행인** 염상덕 **편집인** 장기문 **편집주간** 정수자
편집위원 조형기, 김준혁, 이형복 **편집기자** 김민서 **발행처** 수원문화원
주소 442-08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28
전화 (031)244-2161~3 **팩스** (031)244-2164
홈페이지 www.suwonsarang.com **디자인·인쇄** 유승 (031)207-3370

차례

■ **화보**
서호천의 여름 ····· 이용창 2

■ **권두칼럼**
광복 70주년에 생각한다 ····· 황인성 4

■ **시 속의 수원을 거닐다**
광교산 골짝, 밥집과 사람살이를 넘어 ····· 정수자 6

■ **특집 – 수원의 독립운동가**
Ⅰ 수원의 대표적 민족사회운동가 김세환 ····· 김권정 12
Ⅱ 독립운동의 큰 별 임면수 선생 ····· 박상풍 16
Ⅲ 부민관 폭파 의거의 주역, 조문기 ····· 방학진 20
Ⅳ 시대를 초월한 선각자 나혜석 ····· 김형목 24
Ⅴ 수원 독립운동의 불꽃, 이선경 ····· 한동민 28
Ⅵ 의기(義妓) 김향화의 망곡례, '대한독립만세!' ····· 이동근 32

■ **수원의 재발견**
화성으로의 아름다운 맞이정자, 영화정 ····· 김준혁 36

■ **수원의 길**
수원의 팔색길, 제7색 효행길 ····· 김해자 40

■ **수원 사람을 찾아서**
전국 최초의 문화유산해설사, 윤규섭 ····· 이형복 44

■ **수원에서의 첫날밤**
화서에서 시(詩)를 꿈꾸다 ····· 박설희 48

■ **사건으로 본 수원**
1970년대 수원성복원정화사업 ····· 조성우 52

■ **수원의 추억**
잃어버린 수원을 찾아서 ····· 정해수 56

■ **판, 팬(fan), 펀(fun)**
수원연극축제,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 ····· 정다미 60

■ **마을만들기**
행복한 칠보산마을 공동체, 금호동의 마을만들기 ··· 김장선 64

■ **소식&안내**
문화원이 할 일 ····· 68













광복 70주년에 생각한다

황인성 | 한신대학교 초빙교수

올해로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지 70년이 된다. 작가 심훈이 꿈에도 그리던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 곧 70년 전 광복의 그날 우리 민족이 느꼈던 환희가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징병과 징용 등으로 제국주의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렸던 우리 선조들에게 해방은 그 자체가 사지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며, 망국노에서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우리의 광복이 일본의 패전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는 측면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광복은 일본의 국권 강탈 이후 한반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만주, 연해주, 중국 대륙, 미주 지역 등 국내외 각지에서 끈질기게 전개된 독립운동의 열매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 중이던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일본의 항복 소식에 기뻐하기 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비통한 심정이었다고 술회한 것에서 보듯이, 자력으로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수많은 독립지사들의 엄청난 희생과 고귀한 독립정신을 빼고는 광복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과정이 외적과 맞서 싸우다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지배층이었던 다수의 왕족과 고관들이 일제의 귀족 작위와 은사금을 받고 나라를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일본과 맞서 싸운 사람들은 오로지 동학농민군이나 의병 등 당시의 백성들이었으며, 모든 재산을 팔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을 양성했던 이회영 일가 등 소수의 사대부였다는 점이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점은 바로 당시 일제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산하에 외롭게 뼈를 묻은 그분들의 보국전쟁, 독립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굴복하고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해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라면 나라를 되찾는 것을 최대의 시대적 과제로 여기기 마련이었고, 이 같은 기개가 일제강점 후 채 10년이 되지 않은 1919년, 자연스레 자주독립선언과 만세시위로 터져 나왔던 것이다. 독립을 선언한 민족이 새롭게 나라를 세웠으니, 더 이상 왕의 나라가

아닌 백성의 나라, 공화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그것이었다.

다 알다시피 수원은 기미년 당시 독립만세 시위가 가장 격렬하고 끈질기게 일어났던 고을 중 한 곳이다. 기미년 3월 1일 수원면 방화수류정에서 있었던 청년학생들의 만세 시위 이후 시장 상인과 농민, 천도교와 기독교인, 유생, 기생들까지 가세한 독립만세 운동이 4월 중순까지 동탄면, 송산면, 향남면, 우정면 등 수원군 일대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제의 부당한 압제에 저항하고 당당하게 자주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투쟁이 바로 오늘 수원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시민정신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너무 빨리 찾아 온 광복은 해방의 감격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분단의 멍에도 가져다주었다. 수원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보다 긴 안목으로 과거를 성찰하고 앞으로의 도시 비전을 함께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범시민적인 광복70주년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무쪼록 광복 70년 기념사업이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분단된 조국의 통일 실현이라는 '제2의 광복'을 내다보며, 평화·인권·생명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모범적인 미래도시 수원의 꿈을 키워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06 광교산 길(조형기)



은유적 생

손세실리아

광교산 자락 무허가식당에서 일하는 산숙 씨 손수재배한 시금치 앉은걸음으로 반나절 넘게 캐 손수레에 싣고 가게로 돌아가던 중 왕벚꽃 터널 혼자 보기 아깝다며 육성 중계해 줍니다 고단할 테니 어서 가 쉬라는 말 일축한 채 일당 받고 출장 나와 꽃구경하는 처지에 이깟 일 힘들어하면 염치없는 거 아니냐며 여기야말로 신의 직장이라 너스레니다 노조 간부하다 미운털 박혀 잘리고 퇴직금 털어 손대는 일마다 거덜 나 남은 거라곤 바슬바슬한 몸뚱이뿐이지만 죽는소리 일절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생과 맞짱 뜨는 참일 테지요 뒤차의 신경질적인 경적 더는 모르쇠 못 하겠던지 전화 끊으려다 말고 불쑥 화장실 문짝에 시 붙여놨다며 저작료는 알아서 수령해가라 통고합니다 숯불제육구이에 동동주 거둬 먹이려는 핑계일 터 하루쯤 책상머리 벗어나 콧바람 쐬라는 출장 명령일 터

고달픈 생에서 길어 올린
놀랍도록 번뜩이는

– 『꿈결에 시를 베다』(실천문학사, 2014)

광교산 골짝, 밥집과 사람살이를 넘어

정수자 | 시인

여름이면 수원의 산들도 한층 짙어진 초록으로 우줄댄다. 품에 길러온 나무와 꽃과 풀과 바람 그리고 물소리로 사람들을 꾀어낸다. 산을 찾아 사람들은 걷고 쉬고 웃으며 크고 작은 위안과 치유를 얻는다. 그 중에도 광교산은 특히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오죽하면 산에게 미안해서 공원이나 걷겠다는 농담을 할까.

사람들이 몰리면 식당이 번성한다. 하광교동부터 상광교동 깊은 골짝에 이르기까지 광교산 가는 길은 밥집으로 넘친다. 풍광 좋은 곳이면 모여드는 밥집들이 광교산 턱밑까지 차고 앉아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밥집은 불법이지만 오래된 영업이고 통제도 어려운 광교산자락 풍경이라 이제는 허용의 등급 조절로 가는 것 같다.

밥과 벌이의 기나긴 끈

그런 밥집들은 거개가 '보리밥'을 내걸고 있다. 간간이 '막국수'나 다른 차림표도 간혹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모두 보리밥에 도토리묵, 손두부, 돼지고기 바비큐 등을 주 메뉴로 채소를 듬뿍 내놓는다. 산을 힘들게 오른 사람들은 내려오자마자 이런 밥집을 찾는다. 산행 후의 유독 맛있는 밥에 막걸리 한잔을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으로 친다. 그 낙에 광교산을 오르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산 아래에서의 먹고 마시는 시간을 중시하는 사람도 많다.

물론 밥만 먹으러 가는 경우도 꽤 있다. 도심의 시멘트 숲에서 지내다 보면 더 깨끗한 바람이 그리운데 시원한 물소리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교산 아래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광교산이 베푸는 최대의 혜택은 시민들이 누리는 맑고 푸른 바람과 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문제는 환경 훼손이다. 하수정화시설을 잘 갖춰놓았다 해도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데서 나오는 오염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밥집들 속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삶들의 밥벌이집이기도 하다. 거기서 살아오며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게 얼마인데 밥집도 못 하게 하냐는 주인들만 아니라 거기 달린 식솔들 또한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 읽는 시 속의 "산숙 씨"는 그런 밥집 일손들의 나날을 보여준다. 그녀는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광교산 아래 어느 밥집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바람과 물소리에 시를 비벼먹는 밥집

그녀는 "광교산 자락 무허가식당에서 일하는" 여느 여자다. 그런데 "손수 재배한 시금치 앉은걸음으로 반나절 넘게 캐 손수레에 싣고 가게로 돌아가"는 힘든 중에도 "왕벚꽃 터널 혼자 보기 아깝다며 육성 중계해주는" 감성을 잃지 않고 있다. 이어 "여기야말로 신의 직장이라"고 "너스레"를 떨지만 그와 달리 뼈아픈 속사정이 있다. "노조 간부하다 미운털 박혀 잘리고 퇴직금 털어 손대는 일마다 거덜 나 남은 거라곤 바슬바슬한 몸뚱이뿐"이니, 그녀가 헤쳐 나갈 밥벌이의 길은 멀기만 하다.

그래도 "화장실 문짝에 시 붙여놨다며 저작료는 알아서 수령해 가라"고 여유를 부린다. "숯불제육구이에 동동주 거둬 먹이려는 핑계"라지만 친구 부르는 호기도 자못 시적이지 않은가. 그러고 보니 표식당에서 시를 읽은 기억이 있다. 이런 데서 좋은 시를 만나다니 누가? 갸웃대며 시를 고르는 안목이며 화장실 문에 시 붙여놓은 누군가의 생각에 흐뭇해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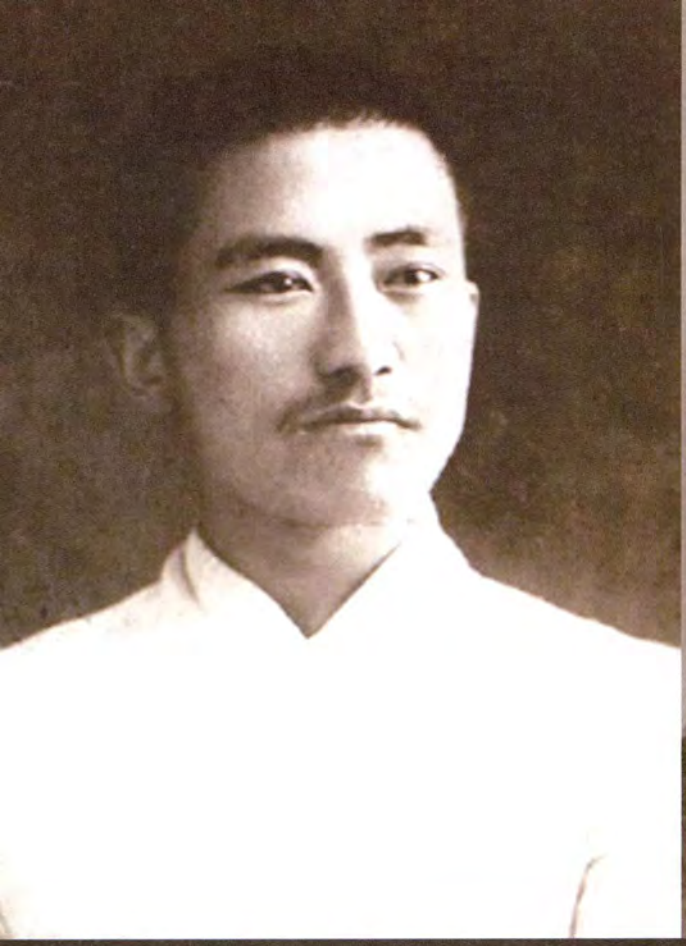
아,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시를 아니 "저작료"도 "숯불제육구이에 동동주"이리라. 이리 멋진 저작료라면 내 시는 얼마든지 걸어도 좋아! 할 것만 같다. 막상 시의 주인인 손세실리아 시인(2001년 『사람의 문학』으로 작품 활동)은 그 방문을 미루고 있는 듯하다. '까막눈' 어머니를 감동적으로 그려 이 땅의 어머니들을 돌아보게 한 시인은 이렇듯 낮고 고되지만 건강한 삶을 길어 올려 사람살이의 골짝을 곡진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 오면 물소리 들으러 가던 그 꼭대기집. 수원천을 이루는 주 물길에다 제법 크게 흐르는 골짝의 도랑물소리가 좋은 밥집이다. 불법만 아니라면 광교산 밥집들을 더 편히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중에도 가는 것은 물론 광교산 바람과 물소리를 비벼먹는 보리밥맛이 시내에서의 한 끼와는 전혀 다른 특별함을 지닌 때문이다.

산골짝을 특별한 공간으로

그럼에도 풍광 좋은 곳마다 식당으로 뒤덮는 우리네 자화상은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 알다시피 유명한 절집도 입구부터 먹을거리와 유흥으로 번쩍거리지 않는가. 고요해서 더 돋보이고 오래 간직할 풍치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은 자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고적한 산사의 맛을 되찾는 곳도 늘었지만, 아직은 떠들썩한 먹거리와 조잡한 기념품으로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곳이 많다.

수원의 광교산은 그나마 난개발을 줄인 면이 있다. 하지만 그곳을 유기농채소나 꽃단지 등으로 특화할 수는 없을지. 시민의 정신 건강과 수원 문화의 미래까지 고려하면 삶의 참다운 가치를 앞에 두는 새로운 실현도 가능하리라.











| 특집 |

광복 70주년 기념 특집

수원의 독립운동가

수원의 대표적 민족사회운동가 김세환

김권정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세환(金世煥)은 근대 수원이 낳은 대표적인 민족·사회운동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한말 이래 수원을 중심으로 근대 교육 현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후에도 사회운동, 신간회운동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근대 민족의식 형성과 독립운동

김세환은 1888년 11월 수원 남수동 24번지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가까운 수원종로교회에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배타성이 강한 수원에 서구 종교가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였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김세환은 어린시절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김세환(제일 뒷줄)과 가족의 모습(『수원지역 근대 교육자료 총서 1』, 수원문화원)

수원종로교회는 1901년 말에 설립되었으며, 선교활동을 하면서도 교육과 구국 활동에 적극 힘썼다. 당시 교회에는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고, 그는 교회를 다니며 교육가, 독립운동가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김세환은 서울로 올라가 관립 외국어학교에 진학하였다. 졸업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중앙대학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귀국했다. 귀국한 시점은 일제의 강제 합병으로 민족 공동체가 식민지 나락으로 떨어진 직후의 상황이었다.

교육과 항일의식 고취

그가 처음 활동한 곳은 수원상업강습소(水源商業講習所)였다. 1910년 직후부터 그는 이곳에서 직조감독관으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학교는 오늘날 수원중·고등학교의 전신으로 '상업에 관한 지식, 기능의 강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1909년 수원 상인들이 단결하여 항일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였다. 이 곳에서 그는 수원의 민족·사회운동가로 성장하는 청년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여기에는 수원강습소 2회 졸업생 김노적과 학교 보조교사 박선태 등이 있었다. 이들은 김세환의 지도를 받으며, 교육활동 및 사회활동 방면에서 그를 적극 지원하였다.


삼일여학교 재직 당시 김세환 학감의 모습
(『수원지역 근대 교육자료 총서 1』, 수원문화원)

1913년 김세환은 삼일여학교(현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학감으로 자리를 옮겨 밀러 교장과 함께 학교 건물을 새로 건축하였고, 선교활동으로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학교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였다. 학교 건물 벽에는 한반도 지도를 조각해

붙여 민족의식을 드러냈으며, 장마철이면 범람하는 학교 개울 때문에 등교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나뭉굴고 있는 수원 남문(팔달문) 문짝을 옮겨다 다리를 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양잠을 가르칠 수 있는 실습장을 만들기도하였다.

수원지역 3·1운동의 주도적 참여

1919년 2월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YMCA 학생부 간사 박희도를 통해 독립만세 계획을 듣고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원과 충청지역의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순회위원'이란 책임을 맡은 그는 홍성교회 김병제 목사, 남양교회 동석기 목사, 수원종로교회 임응순 전도사 등을 비롯해 약 40여 명의 동조자를 얻었다. '민족대표'로 되어 있었으나 서울 도착이 늦어져 독립선언서에 기명하지 못하였다.

1919년 2월 말경 그는 전국 만세시위 동참을 위한 수원지역 준비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를 주도한 김노적을 비롯한 대부분이 상업강습소 시절에 가르친 제자들이었다. 독립만세시위 계획을 설명한 그는, 수원에서 서울과 같이 3월 1일 정오에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3월 1일 아침 서울 상황 파악을 위해 서울로 올라간 사이 야간



김세환의 서대문형무소 수형 기록표

횃불 만세시위 혐의로 주도청년들이 체포되고, 자신도 서울에서 체포되어 실제 진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재판 과정에서 기개를 잃지 않고 "민족의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정의한 김세환은 '민족 차별'을 전제로 하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맞서 기회만 있으면 독립하려고 했다는 의지와 함께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재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밝혀 지켜보던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1920년 10월 30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풀려났다.

좌우를 넘어선 수원 민족사회운동 지도자

거의 1년 만에 출옥한 김세환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다. 독립운동자라고 하여 일제의 감시와 경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운동 이후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단념하고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갔다.

1920년대 초 출옥 직후 그는 '조선기독교창문사' 설립에 참여하였다.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설립에 대거 참여하였다. 이들은 전국 강연단을 조직하고 활동했고, 여기서 김세환은 충청지역의 강연단을 맡아 활약하였다.

그는 1920년대 후반 좌우를 넘어선 신간회운동을 통해 수원 민족운동 전면에 나섰다. 1927년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연합조직이었던 신간회(新幹會) 수원지회에 참여했고, 1928년 8월 19일 개최된 임시대회에서는 수원지회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좌우 갈등 속에서도 이를 통합하는 외곽조직으로 조직된 수원체육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신간회를 끝으로 1930년대 이후에는 수원지역 민족운동에서 더 이상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다가 1939년 수원 삼일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자 그가 나서서 수원 갑부 최상희씨를 움직여 1만 원을 희사하게 하여 폐교 직전의 학교를 구하였다. 1941년에는 홍사훈 선생을 설득해 수원상업학교(현 수원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해방되기까지 교육에 힘쓰다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16일에 세상을 떠났다.

독립운동의 큰 별 임면수 선생

박상풍 | 삼일상업고등학교 교사

필동(必東) 임면수(林冕洙) 선생은 수원지역의 대표적 근대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 기념사업 추진을 계기로 선생의 삶이 조명되기를 바란다.

역사적 소임을 깨달은 선각자

선생은 1874년 6월 13일 수원군 수원면 매향리에서 아버지 임진협과 어머니 송씨 사이에 2남으로 출생했다. 성품이 중후하고 어려운 일에 닥쳐서도 태연하면서도 의기가 있는 자질을 지녔으며, 19세에 부인 전현석 여사와 결혼했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던 중 우국지사들이 독립협회에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1898년 25세에 독립협회를 찾아 서울 상동 기독교감리교회 전덕기 목사와 운명적인





임면수 선생(좌)과 부인 전현석 여사(우)

만남이 이루어졌다. 민족운동을 이끌고 있는 전덕기 목사와 국제 정세와 항일운동, 신문화운동과 개화계몽 및 신학문 교육, 예수 신앙 등에 대하여 여러 날을 토의하면서 마침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명확히 하고 기독교 신자가 됐다.

그 후 매일 상경하여 애국운동자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정신으로 의기충천 했다. 아울러 상동청년학원에서 일어와 측량을 배웠고, 수원양잠학교·수원 화성일어학교 등을 졸업하는 등 다방면으로 신학문을 배우는 데 노력했다.

소신을 행동으로 실천한 근대 교육자

내 고장부터 개화하고 신학문 교육으로 인재를 길러야겠다는 결심으로 동지 청년들과 협의를 거듭한 후, 1903년 봄에 수원종로교회에 삼일학교를 설립·개교하여 교사로, 교감으로, 교장으로 봉사했다. 학생들에게 머리를 자르게 하고, 검정색 옷을 입게 하는 등 서양의 생활양식을 소개하고, 예수의 진리를 배우도록 교육체제와 신학문 교과서를 채택하는 등 혁신적인 교육을 했다. 1923년에 완공된 아담스기념관은 미국 아담스교회의 성금으로 지어졌으며, 그가 직접 감리를 맡은 유서 깊은 건물이다.

을사조약 이후 1907년 국권회복운동으로 전 국민이 합심하여 일본에 대한 국채를 갚아 경제적으로 독립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는 삼일학교 교장 이하영, 김태제와 함께 자비로 격문을 만들어 경기도 전역에 이를 배포하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취지서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재물을 가벼이 여긴다'며 담배값을 아껴 동참하자는 내용이다.



아담스 기념관

독립전쟁을 이끈 혁명가

임면수는 삼일학교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에도 신민회를 조직해 경기도 대표로 긴밀한 활동을 했다. 신민회가 해외 무장독립투쟁을 결의함에 따라 1910년 10월 재산을 삼일학교에 희사하고, 극비리에 부인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고생 끝에 압록강을 건너 봉천성 회인현 황도천에 도착했다. 만주에서는 이름을 임필동(林必東)으로 바꾸고 활동했다.

선생과 부인 전현석 여사는 통화현 남관에 중계 연락 책임자에 임명되어 객주집을 열어 내왕하는 요원에게 침식을 제공하고 각 기관 및 학교에 물품을 조달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했다. 전현석 여사는 항상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독립군들을 위해 하루저녁 대여섯 번의 밥상을 차려냈고, 무기 보관은 물론 독립군의 해진 옷을 기워주고 젖은 발을 일일이 만져주었다. 이러한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전현석 여사가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평양감옥에 수감된 임면수의 모습(아랫줄 오른쪽 첫 번째)

임면수는 통화현 합니하에 설립된 민족학교인 양성중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했다. 양성중학교는 제2의 신흥무관학교로 그는 부민회 활동으로 학비를 조달하고 십여 년간 중책을 맡아 민족의식 고취에 혼신을 다했다. 이렇게 양성한 독립군이 청산리 전투 등을 이끈 독립전쟁의 영웅들이다.

1919년, 20살의 장남 우상에게 국내에 잠입하여 김세환 등의 동지와 연락 및 군자금 조달의 임무를 맡겼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상은 서간도로 귀로하던 중 동상으로 사망하였으며, 임면수는 1921년 2월 길림성에서 일제에 체포되어 평양감옥에 압송되었다. 감옥에서 고문과 매로 반신불구가 되어 석방됐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거쳐할 방하나 없었다.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시대의 정신으로 계승해야

선생은 애국의 목적과 수단으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신념과 의지를 유지했다. 그의 애국심은 삼일학교와 종로교회에 이어져 3·1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애국계몽 실천운동으로 삼일남·여학교를 설립하고, 집터 등을 학교부지로 희사하여 삼일여학교(현, 매향중·고등학교)의 기반을 마련하였음에 두고 감사할 일이다. 그는 엘리트교육을 받은 자로 쉬운 길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의연한 길을 선택했고, 그의 독립운동은 가족들의 의지와 희생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선생의 공적에 1980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1930년 세류동에 안장한 묘소는 1964년 삼일학교 교내에 이장하였다가, 다시 2009년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여 안장하였다. 비석은 삼일학교 교정에 있다가 2015년 수원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지금! 진정 임면수 선생과 같은 의로운 정신의 의인이 절실하다.

부민관 폭파 의거의 주역, 조문기

방학진 |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일제강점기, 조선인 소년의 고된 삶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당시 수원군)에서 출생한 조문기(趙文紀, 1926.5.19~2008.2.5)는 몰락한 양반 집안의 2남 1녀 중 차남이다. 독립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친 때문에 집안은 점차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대부분의 식민지 소년들처럼 조문기는 집에서 십여 리 길로 한 시간을 걸어야 도착하는 보통학교(현 화성시 매송초등학교)생활은 지루함의 연속이었다.


조문기 선생의 모습

몇 달째 월사금을 내지 못해 회초리를 맞거나 교실 뒤에서 벌을 서며 수업을 들어야 했던 조문기에게 학교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결국은 그나마 살림살이가 좀 나았던 용인 양지의 외갓집으로 이사를 하고 양지보통학교로 전학 가면서 점차 학교생활에 적응하였고 성적도 상위권이 되었다. 그래서 학교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당시 가난한 조선인들의 선망이던 경성사범학교 시험에 응시하게 되지만, 대부분 일본인을 뽑는 차별정책으로 낙방하고 만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결과는 그의 삶 전체를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다.

사범학교 낙방, 식민지 소년의 눈을 뜨게 하다

낙방이라는 결과에 낙담하여 꼬박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눈물만 흘렸던 소년 조문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흘째 되는 날, 머리가 맑아졌다. 조선에서는 조선인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를 빼앗긴 설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나라를 되찾는 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낙방은 나에게 보약과도 같은 경험이었다."

-『슬픈 조국의 노』(조문기, 2005)

1942년 10월, 열여섯 조문기는 이제 적도(敵都) 일본의 심장부로 들어선다. 그의 파란만장한 그렇지만 너무나도 고단한 일생이 펼쳐지는 순간이다. 도쿄 인근 가와사키에 위치한 군수공장인 일본강관주식회사에 위장(?) 취업한 조문기는 그곳에서 독립투쟁의 평생 동지가 될 유만수(柳萬秀, 1923~1975)를 만나게 된다.

1944년 5월, 조선독립에 대해 의기투합한 그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회사에서 발행한 〈훈련공 교양서〉의 내용이 발단이 된 것이다. 내용은 조선인에 대한 모욕으로 가득했다. '(조선인) 훈련공들은 모두 농땡이를 잘 부린다, 밥만 많이 먹는다, 쌈질을 잘한다, 여자를 잘 후린다 등등' 교양서의 내용도 문제였지만 공부를 시켜준다는 거짓말로 군수공장에 오게 하여 공부는커녕 노동 착취만을 일삼는 회사와 일제에 대한 불만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 불만 붙이면 곧 폭발할 것 같은 일보 직전의 상태였다.

침착하고 노련한 유만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교양서가 뿌려진 날 저녁, 비밀리에 사람들을 모아 작전을 지시하고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바로 행동을 개시하였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가지 않고 운동장처럼 넓은 식당에서 그대로 버티고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무장한 헌병들이 80여 명이나 출동하여 곧장 발포할 태세로 엄포를 했으나 3천 명이 넘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사기를 단번에 꺾을 수는 없었다. 농성은 3일간 지속되었고 주동자로 지목된 유만수와 조문기는 회사를 빠져나와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일본강관주식회 파업 사건은 전시체제 아래 일본의 군수공장에서 일어난 유일한 파업이었다. 게다가 조선인들이 주도한 것이었기에 일본정부는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정부의 보도 통제로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일제하 마지막 의열투쟁, 부민관 폭파 의거

파업 후 신분을 숨기며 생활하던 조문기와 유만수는 1945년 1월 드디어 귀국하여 또 다른 독립투쟁을 준비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일제하 마지막 의열투쟁으로 기록

되는 '부민관 폭파의거'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로 사용되고 있는 부민관(府民館)은 1935년 경성부가 세운 극장으로 해방 후에는 미군정이 임시로 사용했고, 국립극장, 국회의사당, 서울시민회관으로 사용되다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여러 친일 관련 행사가 단골로 개최되던 곳이다. 부민관 건너편에는 경성부청(오늘 날 서울시청)과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사(현 한국프레스센터 자리)가 있었다. 부민관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 통치의 심장부 한복판에 이었던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지나는 옛 부민관 앞에는 이런 내용의 표석이 있다.

> '1945년 7월 24일 애국청년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이 친일파 박춘금 일당의 친일 연설 도중 연단을 폭파했던 자리'

박춘금은 조선인으로는 유일하게 일본 중의원까지 지내고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앞장선 악질 친일파다. 그는 친일단체 대의당(大義黨)을 만들어 7월 24일 부민관에서 이른바 '아시아민족분격대회'를 개최했다. 아시아민족분격대회는 박춘금이 일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함과 동시에 태평양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일제가 민족 지사들을 대량 학살키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하나로 열린 친일 행사였다. 대회 소식을 접한 조문기를 비롯한 애국청년당원들은 긴급 회의를 통해 대회 분쇄를 결의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다.


부민관 폭파사건의 주역인 강윤국·조문기·유만수 의사(왼쪽부터)

유만수는 서울 수색 방공호 작업장에서 매일 조금씩 다이너마이트를 몰래 가져왔고 강윤국은 자신의 국수가게에 온 헌병의 권총을 몰래 빼오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다이너마이트를 정확한 시간에 폭발시킬 수 있는 심지를 만드는 일이었다. 여러 차례 실패 끝에 드디어 목침 크기의 시한폭탄 2개가 완성되었다.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은 단상 밑과 단상을 오르는 계단 밑에 각각 1개씩 모두 2개의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급히 부민관 밖으로 나와 길 건너편 경성부청 앞에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한폭탄에 불을 붙인 지 정확히 3분 후인 7월 24일 오후 9시 9분 50초. "꽝!…꽈광!"

벼락치는 듯한 굉음이 연달아 울리며 비명과 화약연기, 먼지 등으로 대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거사 직후 조선총독부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현상금 5만 원을 걸고 정보수사요원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요시찰 인사를 비롯해 600여 명을 연행했지만 끝내 대한애국청년당원들을 붙잡지는 못했다. 부민관 폭탄 의거는 우리 민족의 반세기에 걸친 항일투쟁사에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해방 마지막 순간까지 꺾일 줄 모르는 항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쾌거였다.

부민관 폭파 의거 69주년이었던 작년 7월 24일 매송초등학교 교정에는 조문기 선생의 동상이 세워졌다. 그리고 의거 70주년인 올해 7월 24일에는 바로 그 현장에서 부민관 폭파 의거를 연극으로 재연한다. 선생의 비문 내용처럼 "한번 독립운동가는 죽을 때까지 제2의 독립운동인 친일청산과 통일운동에 복무해야 한다"는 선생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 "이 땅의 독립운동가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다. 통일을 위해 목숨 걸지 못한 것이 첫 번째요,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요, 그런데도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세 번째다."
>
> - 독립투사 조문기 선생의 비문에서



조문기 선생의 동상(화성시청 제공)

시대를 초월한 선각자 나혜석

김형목 |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관습을 타파하다

나혜석(羅惠錫, 1896~1948)은 한국 신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녀는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등장한다. 최초 서양화 여류화가이자 여성 최초 개인유화전 개최, 근대적인 최초 여성작가 등등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이는 시대를 초월한 그녀의 인생 역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나혜석

'파격적인' 인식과 활동은 당시 찬사보다 비난의 대상이자 이야깃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가부장적인 인습이 강하게 잔존한 시대 상황은 그녀를 이해하고 포용하기에 너무나 척박한 현실이었다. 사회적인 질시와 비난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소신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했다. 결과는 자신의 의지와 달리 가족은 물론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는 가운데 혹독한 시련으로 이어졌다. 「이혼고백서」 발표와 '정조 유린에 대한 고소사건' 이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말았다. 정신적인 방황과 경제적인 곤궁에 따른 불행한 생애는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인간 나혜석' 바로 알기가 시작되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시대나 인식 변화와 더불어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격세지감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혜석을 대중적인 관심 속으로 이끌어 낸 본격적인 시점은 21세기를 맞이하기 직전이었다. 주지하듯이 화가·문학가로서 개별적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9년 2회나 개최된 '나혜석 바로 알기' 학술대회는 본격적으로 여성운동가와 민족운동가로서의 위상 등 다양한 그녀 인생 궤적을 조명하는 계기였다. '인간 나혜석'에 대한 평가는

현실 인식 변화로 가능할 수 있었다. 매년 4월에 고향 수원에서 개최되는 정기 학술회의는 나혜석을 '원래' 모습으로 재현하고 평가하는 밑거름이었다.

2012년 수원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각 학계 전문연구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나혜석학회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나혜석을 재조명하는 기틀을 만들었다. 후속적인 작업은 일본과 중국 동북지역 답사와 자료 수집으로 이어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녀가 활동한 지역에 대한 탐구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한국 근대사의 애환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근대교육 수혜로 사회적인 책무를 느끼다

나혜석은 부모님의 열성과 집안 분위기로 일찍부터 삼일여학당에서 동생 지석과 함께 근대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관내 여학교를 망라한 연합운동회를 통해 사회적 존재성을 일깨울 수 있었으며, 민족의식 형성과 아울러 여성평등 문제 등도 학교생활을 통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졸업 후 9월, 서울 진명여고보로의 진학은 주위의 부러움을 받기에 충분했다. 서울에서 동생과 함께 한 학창생활은 희망과 고뇌가 동반했다. 편리한 기숙사 생활의 이면에는 항상 일상사를 통제하는 무형의 '기제'가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혜석은 3년간 수학한 후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이자, 최우등생으로 졸업



나혜석의 모습(앞줄 좌측 첫 번째)

한 그녀의 이력은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임에 틀림없었다. 명석한 두뇌와 그림에 대한 애착은 미래를 향한 원대한 포부와 함께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졌으며 동시에 사회적인 책무를 느끼는 학창시절이었다.

일본 유학시절에서 모순된 현실을 인식하다

진명여고보를 졸업한 후 곧바로 동생과 함께 동경으로 유학하였다. 사립여자미술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는 재능인이었다. 당시 일본 여성들은 문예지 『세이토[靑鞜]』를 통하여 여성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주요한 쟁점은 정조 문제·낙태 논쟁·공창 폐지 등이었다.

동경유학생학우회 기관지인 『학지』에 투고한 「이상적 부인」은 근대적인 사조를 수용한 현실 인식을 잘 보여준다. 글에서 완벽한 이상적인 여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이어 「잡감-K언니에게 여(與)함」도 신교육을 통한 여성해방을 주장했다. '조선여자다운' 여인상 정립은 여성해방을 위한 주요한 논제로 부각시켰다. 김필례·김마리아 등과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 조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였다.

민족운동에 투신하다

1918년 3월 여자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귀국하여 모교인 진명여고보 미술교사로 재직하였다. 미술활동과 더불어 소설·시 창작활동도 병행했다. 이듬해 3·1운동에서는 김마리아·황애시덕 등 동경 유학생 시절 동지들과 함께 주도하였다. 3월 3~4일 개성과 평양에서 정화(貞華)여학교 교장인 이정자(李正子)와 삼일여학교 동창인 박충애(朴忠愛)를 만났다. 3월 5일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이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만세시위운동을 지도하는데 앞장섰다. 이 사건으로 서대문감옥에 투옥되었다가 8월 5일 증거불충분으로 면소 방면되었다. 옥중에서도 동지들과 암호로 연락을 취하며 식민지배 부당성을 폭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나혜석은 외교관 부인으로서 특권을 이용하여 의열투쟁의 대표적인 단체인 의열단(義烈團)에 대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1921년 남편 김우영은 일본 외무성 안동현 부영사로 부임하였다. 현지 청년단체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한 후원에도 적극적이었다.

커리어우먼으로 등장하다

김우영의 끈질긴 구혼에 1920년 4월 정동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3월에는 경성일보사 내청각에서 한국인 여성 최초로 미술전람회를 개최하는 등 세인의 관심을 받았다. 이틀간 관람객은 무려 5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신문을 통한 계몽활동도 병행하였다. 한국 여성들이 그림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원인은 화가를 천시하는 인습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했다. 1923년에는 고려미술회를 통한 양화 보급에 전력하였다. 여성생활의 향상을 위한 의복 개량에 대한 의견은 여성해방을 위한 의견이었다. 외래지향적인 의복 개량은 주체적인 여성상을 오히려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편의성과 아울러 전통적인 고유한 멋을 살리는 방향에서 의복개량이 합리적인 대안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920년대 여성운동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나혜석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물어보자

나혜석은 시대를 초월하여 자기 소신대로 생활하다가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났다. 화려한 삶에 비해 떠날 때는 '진정한 자유인' 그 자체였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남기고 싶어했던 한 줄 회고록 조차도 없이 말이다. 미완인 글이라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다면, 아마 근대문학사·예술사·지성사 등은 좀 더 생생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만큼 '나혜석 바로알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짊어져야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나혜석 생가터(조형기)

수원 독립운동의 불꽃, 이선경

한동민 |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경기도의 유관순 이선경

경기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이선경은 수원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라 할 수 있다. 이선경(李善卿, 1902. 5. 25~1921. 4. 21)은 광주 이씨로 1902년 5월 25일 경기도 수원면 산루리 406번지(현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서 2남 2녀 가운데 차녀로 태어났다. 제적부에 처음 기록된 이름은 '애기(愛基)'였으나 '善卿'으로 고쳤고, '간난(看蘭)'이었던 언니는 '현경(賢卿)으로 바꾼 것은 1916년의 일이다.

당시 양가집 딸들은 처음 태어나서 '간난이', '아기' 등으로 불리다가 조금 크면 아래 사람들은 '아기씨'로 불렀고, 좀더 크면 '아가씨'로 불리다가 결혼하면 밖에서는 '새댁' '○○(수원)댁'의 택호로 불렸고, 안에서는 '마님'으로 불렸다. 당시 숱한 간난이와 아기·애기 등의 이름이 1909년 『민적』에 오르는데, '兒只', '愛基' 등으로 표기되었다. 또 한편 '마리아' '에스터' 등의 세례명을 그대로 쓰거나 '몌례', '애시덕' 등의 한자화된 이름을 올리던 때였다.

여하튼 이들 가장 '수원 여자' 다운 삶을 살아갔던 '이현경'과 '이선경'이 역사에 등장한 것이다. 수원의 대표적인 여성 사회주의자 이현경(李賢卿, 1899~ ?)과 수원의 순국열사 이선경이 한 자매라는 사실은 또 다른 울림을 준다.

이선경의 독립운동

이선경은 수원공립보통학교(현 신풍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 4월 30일 서울의 사립 숙명여학교에 입학하였다. 1919년 3월 5일 서울 학생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구속되어 3월 20일 무죄 방면되었던 전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2학년 때인 1919년 9월 1일 관립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하였다. 이미 언니 이현경이 1917년에 졸업한 학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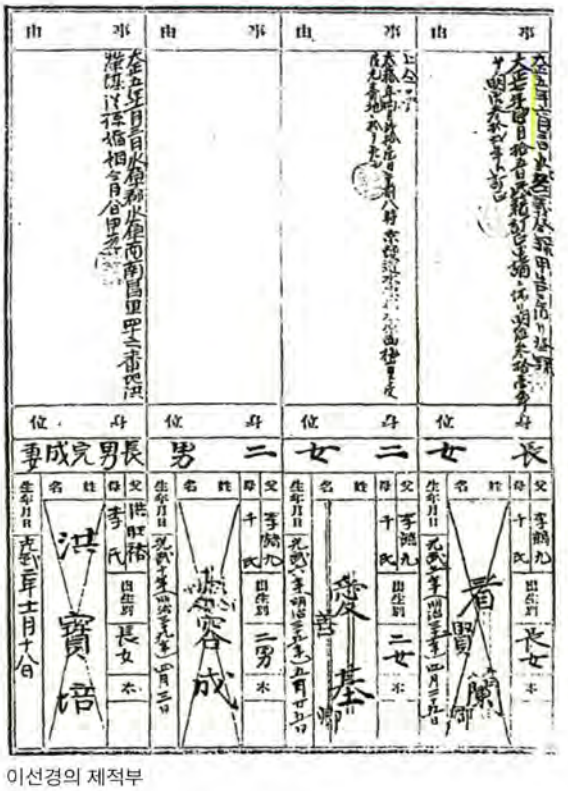
이선경은 집안의 경제적 여유와 개명된 아버지 덕에 언니 이현경의 뒤를 이어 서울로 유학할 수 있었다. 이후 이현경은 일본여자대학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 동경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며 대표적 여성 사회주의 운동자가 되었다. 한편 3·1운동 이후 각성된 이 땅의 젊은이들은 독립운동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선경 역시 수원 삼일여학교 출신으로 당시 이화학당 2학년생인 임순남(임효정)과 최문순 등 또래들과 나라의 장래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선경은 임순남·최문순과 함께 박선태·이득수 등과 1920년 6월 7일 서호(西湖)에서 만나 혈복단(血復團)을 구국민단(救國民團)으로 개칭하는 논의를 하였다. 이후 1920년 6월 20일 구국민단의 조직을 개편하여 단장 박선태, 부단장 이득수, 서무부장 임순남, 재무부장 최문순, 교제부장 차인재, 이선경은 구제부장을 맡았다.

한일병합조약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 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 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 등의 목표를 세우고 1920년 7월까지 1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성안에 있는 삼일여학교(현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회합하여 『대한민』 등 독립신문의 배포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어 후일 독립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그 힘을 다하고자 준비를 하였다. 이렇게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1920년 8월 박선태, 이득수, 임순남 등과 함께 이선경은 체포되었던 것이다.

이에 이선경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1920년 8월 31일 학교 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라 퇴학을 당하였다. 결석일수가 22일에 달하는 무단결석에 따른 것인데, 이는 이선경이 구국민단 사건으로 8월 체포되어 구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화학당에 다녔던 최문순과 임순남이 같은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졸업한 것에 비하면 총독부가 운영하는 관립 여학교였던 탓에 퇴학을 당한 것이기도 하다.



이선경의 제적부

구국민단 사건

근대 수원지역사에 있어 구국민단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원 최초의 비밀결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학생들에 의하여 주도된 비밀조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1921년 4월 12일 박선태와 이득수는 징역 2년을 언도받았고, 이선경을 비롯한 여학생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다. 이에 이선경은 구류 8개월 만에 석방되어 수원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이선경은 일제 경찰의 혹독한 고문으로 인하여 1921년 4월 21일 오전 8시 수원면 매산리 219번지에서 사망하였다. 석방된 지 9일 만에 19살의 나이로 순국하였던 것이다.

이선경의 순국은 구국민단 단장 박선태와 같은 마을 산루리 출신인 이선경이 그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학생들을 이끌었던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산루리 출신의 김노적 등과의 관계를 이선경이 입 다물고 연결고리를 부인한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해 임시정부의 간호부 양성계획과 연관된 측면이 일제에 의해 집중적으로 조사 받았을 것이다. 즉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일제는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고리와 지점을 집요하게 추궁하였을 것이고, 이에 이선경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朝鮮獨立을繼續運動코저

水原의 救國民團

青年의 男子二人과 女子四人

이檢擧되고書類난全部押收

구국민단장 박선태(救國民團長) 경성취직상회로부터 보내인독립운동에 관한 문고 등 노루학교사년생 이득수(京城織文高等普通學校四年生) 수원진명여학교(水原進明女學校) 사년생 이선경(四年生) 수원진명구락부운동부장(水原進明俱樂部運動部長) 수원학생친목회(水原學生親睦會) 간사 김노적(간사 金露笛) 박선태(朴善泰) 이상 네 사람을 지난 십이일 밤에 수원경찰서에서 검거하여 취조하는 중이라는데 그 사건의 내용은 아직 비밀에 붙이고 발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사건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더라

(수원전보)

米國人日中尉蹴打事

決局이和

終始朝鮮人에게

자츈는可怪한陋

셰사람을신문한

후에소림랑장의

불꽃같았던 독립운동가의 삶

유관순 열사가 1920년 10월 순국하고 난 지 6개월만인 1921년 4월 21일 이선경 열사가 꽃다운 나이에 또 다시 순국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수원이 낳은 이선경 열사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살아왔다. 유관순 열사가 일제의 감옥에서 순국하였고 이화학당 교사 미쓰 월터 선생이 시신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에 비해, 이선경 열사는 경기여고를 퇴학당한 상태였고, 구류 8개월 만에 석방되어 집에서 순국하였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일제강점이 1945년까지 지속되었고,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던 인물들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더욱이 일본유학을 했던 언니 이현경이 사회주의 운동을 펼쳤고, 일제의 검거를 피해 1928년 남편 안광천(安光泉, 1897~ ?)과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 돌아오지 않아 순국한 동생 이선경을 조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수원지역은 격렬한 3·1운동으로 일제에 의한 제암리, 고주리 학살만행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 곳이어서 이선경의 순국이 널리 현창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선경의 행적을 추적하여 2011년 수원박물관의 『수원역사문화연』 창간호에 실었고, 이를 근거로 국가보훈처는 2012년 이선경 열사에게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시대를 아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불꽃같은 여성독립운동가 이선경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이선경의 언니 이현경

의기(義妓) 김향화의 망곡례, '대한독립만세!'

이동근 | 수원시청 학예연구사

꽃처럼 아름다운 기생

'기생은 가벼운 몸을 날려 작은 배 위에 서있네(妓詎身輕立小舟)'
'풍악이 울려 퍼지는데 기생은 꽃같이 아름다워(仙韶流動妓花香)'

이 글은 화성(華城) 축성의 대역사를 총 지휘했던 번암 채제공의 문집 『번암집(樊巖集)』에 나오는 내용으로 1795년 봉수당 앞에서 열린 혜경궁 홍씨 진찬연 전, 기생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예찬한 글이다.

'말을 알아듣는 꽃'으로 불렸던 역사 속의 기생들. 우리 수원의 역사 속에는 1919년 3월 29일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수원 기생들의 뜨거운 울림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생'의 이미지는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왜곡된 이미지이다. 기생은 조선시대부터 불리던 호칭으로 우리나라만 쓰던 용어이다. 지난날 잔치나 술자리에 나가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삼던 여자를 일컫는 말로 '예기(藝妓)'와 함께 쓰였다. 기생제도가 정비된 것도 조선시대로 교방이 두어져 기생을 관장하고 교육을 맡아보며 관기제도가 만들어졌다. 교방에서는 가무 등 기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 기예(技藝)는 물론, 행의(行儀)·시(詩)·서화(書畵) 등을 가르쳐 예술적 기능뿐만 아니라 행동의 올바름까지 교육하였다. 조선시대의 관기는 진찬, 진연 같은 궁중잔치에 동원됐다.

조선시대 기생들의 삶의 변화는 갑오개혁 이후부터 전통적인 사회의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다. 왕실의 재정이 부족해지고, 기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양반 세력도 가파르게 기울어 갔기 때문이었다. 이후 관기에서 내몰린 기생들은 일제의 의도적 정책을 통해 상업화되어갔다. 그 과정에서 기생들은 재주와 끼를 발하며 오늘날 연예인의 선조격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 기생들은 대중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냈고 대중예술의 꽃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을 맞이한 이후 기생들의 활동이 침체되면서 미군정 시기에 일제 잔재인 '공창의 단속'에 맞물려 청산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 역사 속에 아스라이 멀어져 가버렸다.

천하일색 수원기생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수원에 언제부터 기생조합이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918년 7월 발행된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에 서울의 대표적인 권번과 함께 '수원예기조합(水原藝妓組合)'이 소개되었다. 수원예기조합의 존재를 확실히 알려주는 자료로 기생들을 홍보하기 위해 발간되었고, 한편으로는 '풍속 교화'라는 측면에서 일제가 기생들을 통제하고 있는 식민지배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수원예기조합 33명의 기생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주역들이었다.

수원예기조합은 수원면 남수리에 있었는데 지금의 화홍문 아래 수원천을 따라 있는 남향동 일대이다. 수원예기조합의 기생들은 23세의 맏언니부터 이제 막 여인으로 꽃피우기 시작할 나이의 15세 어린 기생들까지 함께하고 있다.

비록 수원에서 태어난 기생들은 없지만 저마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기생들이었다. 서도홍, 김향화가 제일 이름이 나있던 일등 기생이었고, 검무와 승무 등 정재(궁중무용)는 물론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소리 등 막힐 것이 가히 없었다. 이러한 기생들의 예술적 재능은 손님들을 마주하던 자리뿐만 아니라, 수원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곤란에 처했을 때 자선공연을 펼쳐 그 수익금을 기꺼이 희사하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수원예기조합은 권번 체제로 이행되면서 '화성권번(華城券番)'으로 이름을 바꾼 뒤 1940년대까지도 50여 명의 기생들이 상주하며 영업활동을 이어갔다. 이렇듯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원 기생들은 인생의 수많은 변화 속에 예기조합에서 권번으로의 삶을 살면서 해방을 맞이했고, 해방 이후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다.



관기의 모습(수원박물관 소장 엽서)

한(恨)은 눈물이 되고, 눈물은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으로

식민통치는 전통적인 기생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 사회의 붕괴와 함께 1907년 관기제도가 폐지되었다. 이후 1908년 9월 일제에 의해 '기생 및 창기 단속령'이 제정되면서 기생들의 삶은 공창제의 확산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일제의 식민 권력은 기생들을 창기 취급하면서 경시청에 의해 모든 기생들이 기생조합에 가입하여 영업 허가를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게 제도화 하였다. 결국 기생들은 식민지배의 통제 아래에서 감독과 관리를 받으며 상업적 기생으로 변화해 갔다.

일제의 서슬 퍼런 무단통치가 진행되면서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승하하자 조선 민중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다. 덕수궁 내전은 물론 대한문 밖에서는 수백 명이 엎드려 매일같이 슬프게 울부짖으며 통곡하였다. 이때 수원 기생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가무를 중단하고 근신하였다. 그리고 1월 27일 20여 명의 수원 기생들이 홀연히 나섰다. 수원 기생들은 성복(成服) 참례를 위해 깃당목의 소복을 입고, 나무 비녀를 꽂고, 짚신을 신은 채 오전 여덟시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대한문 앞에 엎드려 망곡례를 행하였다. 조선의 백성으로서, 왕궁에 속했던 궁인(宮人)의 후예로서 나라와 국부를 잃은 한을 눈물로 흩뿌렸다.


의로운 수원기생 김향화 (『조선미인보』)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의 절정이었던 3·1운동이 일어나자 미리 준비하였던 듯 수원기생 30여 명은 화성행궁의 봉수당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당시 화성행궁 봉수당은 자혜의원이 들어서 기생들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었다. 수원기생들은 자혜의원으로 건강검진을 가던 날 1919년 3월 29일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일제 헌병경찰들과 대치했다. 일제 경찰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수원지역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 수원기생들은 일본 경찰과 수비대가 총칼을 들이대고 있었으나

굴하지 않고 만세를 부르는 기개를 보여주었다.

화성행궁 봉수당 진찬연을 빛낸 아름다웠던 화성부의 기생들, 그 후손들이 풍류와 예악을 이어가며 124년의 세월이 흐른 뒤 봉수당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통곡했다. 천한 여성으로만 취급받아왔던 수원기생들이 왕실 전통을 기억하며 누구보다도 고종 황제가 돌아가심을 슬퍼하고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토해냈다.

이날 수원기생들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이는 수원예기조합의 맏언니였던 당시 스물셋의 김향화(金香花, 金杏花)였다. 의로운 기생 김향화는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수원기생들을 이끌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2개월여의 감금과 고문 끝에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분국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에 처해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재판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김향화의 의로움을 지켜보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김향화는 형을 다 마치기 약 1개월 전인 1919년 10월 27일 가출옥되어 수원으로 돌아왔다. 가출옥 된 것으로 보아 몸이 성치 않아 풀려난 것으로 수원으로 돌아온 뒤 그녀의 행적은 알 수 없다.

수원기생들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김향화는 1897년 7월 16일 생으로 본명이 순이(順伊)였다. 향화는 기명으로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녀의 명성에 걸맞은 이름이었다. 『조선미인보』을 보면 김향화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 어느 때 부터인지 수원에서 기생으로 이름을 떨쳤다. 갸름한 얼굴에 살짝 주근깨가 있고 크지 않은 중간 키에 성격이 순하고 귀여운 기생으로 검무와 승무에 능하고, 가사·시조·경성잡가 등 노래를 잘하는 기생이었다.

김향화와 수원기생들의 3·1운동은 관기의 후예와 전통예능의 전수자로서 보여준 민족적 항쟁이었으며, 일제의 강압적인 기생제도와 식민통제에 대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오늘날 기생의 존재는 옛날이야기로 묻혀버렸다. 하지만 기생도 우리 민족의 일원이었으며, 이 여성들의 재능은 대중예술이라는 장르로 계승되었고, 당시 식민지 권력에 대항하며 보여주었던 수원기생들의 민족적 의로움은 오늘의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향화는 2009년 4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015년 현재 김향화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독립유공자 표창장과 훈장메달은 수원박물관 근대 인물 한 코너에 전시되어 그녀의 민족정신과 독립의 의지를 알리고 있다. 2015년 3월의 하늘 아래 '수원, 그날의 함성'에서 수원기생 김향화는 환생하여 우리들 가슴 속에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을 아로새겨 주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되고, 기억된다.

화성으로의 아름다운 맞이정자, 영화정

김준혁 |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노동과 생산의 공간

ㄴ른 저수지에 배 두 척이 떠 있다. 저수지 제방에는 버드나무가 가득하고 곳곳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 한가한 봄날 수원 북쪽에 있는 만석거의 아름다움이다. 그 저수지 끝에 하나의 정자가 기품 있게 자리 잡고 있다. ㄴ자 모양의 정자는 일반 정자와는 달리 제법 규모도 크고, 특히 담장이 쳐져 있다. 왕실의 정자에서나 볼 수 있는 규모의 정자이다. 이 정자의 이름이 바로 영화정(迎華亭)이다.

개혁군주 정조가 수원의 이름을 1793년 1월에 화성(華城)으로 변경하였으니, 그렇다면 영화정이란 말의 의미는 수원, 즉 화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도시 화성으로 어서 오세요' 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조선시대 영화정과 만석거의 모습(「영화정도」, 「화성성역의궤」)

사실 영화정은 만석거라는 저수지를 만들면서 함께 건축되었다. 정조가 개혁을 위한 시도로 국영농장인 대유둔(大有屯)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둔전에서는 토지 없는 백성들과 장용영 가족들, 그리고 화성유수부에 근무하는 관료들의 가족들이 함께 농사를 지어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둔전 경영 농법을 정조는 조선의 전 백성들에게 실시하게 하고자 했다.

이런 농업 개혁의 터전인 만석거에 정조는 아름다운 정자를 짓게 했다.

이 정자에서 농사를 짓던 백성들이 휴식을 취하고 더불어 농사가 잘 되기 위한 모임도 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정자는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에 자리 잡은 양반 사대부들의 쉼터가 아니라 실제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노동의 공간이요, 생산의 공간인 셈이다.

화성유수부 직무 교대 장소

이 영화정은 국가적으로나 화성유수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화성유수의 직무를 교대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을의 수령들은 관아에서 수령의 직인(職印)을 교대하며 부임과 이임을 한다. 그런데 화성유수부는 특별히 만석거에 있는 영화정에서 화성유수의 임무를 교대하는 교인식(交印式)을 거행하였다. 그것에 대한 명백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마도 정조가 자신이 만든 농업개혁의 터전 위에서 보다 넓고 큰 농업행정을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넓은 만석거를 바라보고, 그 만석 옆의 누렇게 황금색으로 물든 대유둔을 바라보는 새로운 수령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아마도 그는 정조에



ㄴ자 모양의 정자, 영화정(조형기)

의해 만들어진 이 터전을 더 열심히 가꾸고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영화정의 별칭은 교귀정(交龜亭)이다. 교귀정이란 앞서의 이야기처럼 화성유수가 교대할 때 이 정자에서 화성유수의 인신인 거북도장을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새로 오는 관리가 가진 이전 수령이 가지고 있던 거북도장을 받기 때문이다. 거북은 오백년 이상을 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수령의 올바른 목민(牧民)의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말라는 의미로 거북도장을 만든 것이다.

교귀정이란 이름 때문에 웃지 못 할 일이 생기기도 했다. 바로 언어의 변천이다. 교귀정으로 불리던 정자 이름이 어느 순간인가 조기정으로 변하게 되었고 더 심하게 조개죽으로까지 불리게 되었다. 만석거 일대에서 평생을 살던 필자가 어린 시절 조기죽 방죽이라고 부르며 이곳에서 수도 없이 낚시를 했다. 그때 사람들은 조개죽 방죽이라고도 부르면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저수지에 말조개가 많아서 조개죽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실제 말조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그 맛도 없는 말조개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기도 했었다.



영화정 앞 만석거의 모습

당파싸움이 없어지길 바랐던 정조

그러나 화성유수의 인신 교대가 정조의 의도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조정내에 있던 관료들의 당파싸움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이다. 초대 화성유수인 채제공과 두 번째 화성유수인 이명식의 임무교대를 기록으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좌의정으로 3년간 영의정과 우의정도 없이 홀로 정승을 했던 채제공이 화성유수로 임명되었다. 아마도 조선 전 기간중 최고위 수령일 것이다. 문제는 그가 남인의 영수라는 사실이다. 남인이 숙종년간 대규모 타격을 입어 조정에 남아 있는 인물이 별로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정조가 채제공을 정승으로 임명하고 화성유수로 보낸 뒤 영의정으로 승진시켰다. 그래서 영의정으로 임명되어 한양으로 가는 채제공과 우의정으로 재임하다가 화성유수로 내려온 이명식의 교인식이 영화정에서 열렸다. 소론의 영수급에 해당되는 이명식이 남인의 영수인 채제공의 얼굴을 보고자 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화정 앞 마당에서 병풍을 쳐놓고 화성유수의 인장을 교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슬픈 역사가 실제로 존재했으니 조선시대 당파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이후 정조는 화성 축성 시 남인, 소론, 노론의 영수들을 화성 내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라도 당파싸움을 없애고 그들이 백들을 위해 헌신적 행정을 하기 바랐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정은 후세에 교훈을 준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정에서의 즐거운 미래를 기대하며

영화정은 오랫동안 개방되지 않았다. 만석공원에서 산책하는 이들 때문이 아니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모르고 무단으로 거처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지난 3월 시는 영화정을 개방하였다.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이 곧바로 붙여질 만큼 아직 영화정이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는 이가 많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화정을 찾아 그곳에서 만석거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희망한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일 년에 한번씩 이 마을 주민들이 대유둔 농가와 함께 화성유수 교대식을 마을축제로 만들면 어떨까 한다.

수원 팔색길, 제7색 효행길

김해자 | e수원뉴스 으뜸기자

수원 팔색길, 제7색 '효행길'을 걷다!

"이 미륵고개에 오면 떠나기 싫어 거둥을 멈추고 한참이나 남쪽을 바라보게 된다. 나도 모르게 말에서 방황한다."



제7색 '효행길' 안내도

지금으로부터 220년 전인 1795년 윤2월 15일 화성을 떠나 의왕으로 넘어가는 길목 지지대고개에 당도한 정조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9일 새벽 창덕궁을 떠난 후 아버지 묘소(현릉원)를 참배하고, 어머니(혜경궁 홍씨) 회갑 잔치를 열어드리고, 양로연, 별시, 장용영 군사 훈련 등 일련의 행사를 치른 후 일곱째 날 환궁하는 길이었다. 16일 한양 입성까지 8일간의 화성 행차는 『원행을묘정리의궤』라는 정조대 위대한 기록 문화로 철저히 남겨졌다.

효행길의 탄생

정조 13년(1789)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양주군 배봉산(현재 서울시립대 뒷산)에서 당시 조선의 3대 길지라는 지금의 융릉으로 옮겼다. 아버지 영혼을 위로해

주는 원찰 용주사도 세우고, 화성행궁을 둘러싼 4천 600보에 이르는 수원 화성(華城)을 건설하는 등 정조는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키고 한양 남쪽을 보위하는 요충지로 삼았다.

1789년 아버지 묘소를 옮긴 후 1800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조는 거의 매년 화성 행차에 나섰다. 창덕궁~노량진~안양 만안교~지지대 고개~수원화성~융릉으로 가는 길인 '능행길'은 그렇게 탄생됐다. 그중 의왕시와 시계인 지지대 고개부터 화성시와의 경계인 장다리교까지 수원시는 '효행길'로 명명했다. 대략 18㎞가 조금 안되고, 도보로 넉넉잡아 5시간이면 충분히 완주할 수 있는 거리다.

찬란한 여름날의 지지대고개

정조는 일 년에 한 번 많게는 두 번 원행(園行)에 나섰지만 환궁하던 날 늘 이곳에서 행렬이 지체되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다. 미륵당현 마루터에 세워진 '지지대비(遲遲臺碑)'의 사연이다.

그곳의 애달픈 사연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찬란한 빛에 가슴은 마구 떨린다.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길 즈음 울창한 아름드리 느티나무의 대오를 보면서 또다시 놀란다. 5천 병마의 군사도시로 화성을 건설한 임금의 자긍심 발로일까. 위용을 한껏 뽐내며



효행길의 시작점인 지지대고개에 있는 지지대비

하늘 끝에 닿았다. 그러나 빽빽하게 들어찬 차들이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이곳에 언제부터 들어선 것인지 모르겠으나 안타깝고 이내 속이 상한다.

최고의 경승지 노송지대!

화성 행차가 거쳐 간 괴목정교와 미륵당(법화당)에서 바로 이웃한 정조시대 느티나무 세 그루가 그 시대를 묵직하게 전한다. 다만 버스정류장이 들어서면서 뒤편에 콕 박혀있는 모양새다. 마치 뒷방 늙은이 신세 같아 보여 다소 아쉽다.

원침 조성 후 왕은 내탕금으로 지지대고개부터 옛 경수국도까지 소나무와 능수버들을 심었다. 현재 이목동, 정자동, 송죽동에 이르는 약 5㎞ 구간으로 '노송지대(老松地帶)'라 부르는 곳이다. 수원토박이들에 의하면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젊은이들 데이트 코스로 손꼽히는 이곳의 운치는 마치 한 폭의 한국화 같았다고 한다.

그러나 1번 국도답게 쌩쌩 오가는 차들을 겨우 피해 만난 200여 년의 노송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 40주만 남았다. 경기도기념물 제19호인 노송지대는 원형을 보존하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은 생명들도 위태롭게만 보인다. '송충이를 입에 넣고 깨물면서까지' 보존하고자 했던 정조 임금이 환생하여 이 현실과 마주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선조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개발 논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노송지대


수원화성행궁 신풍루 모습

정조의 효심 가득한 화성행궁~장다리교

산업화에 직격탄을 맞은 노송지대의 아픔을 만석거(만석공원)에서 잠시 쉬며 달랜다. '효행길' 표지대로 여의루와 영화정을 들러 대유평(정자동) 길을 따라가니 드디어 장안문과 만난다.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도심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군복에서 갑주로 갈아입은 정조대왕 드디어 장안문으로 들어선다. 잠시 후 행궁의 정문인 신풍루로 들어간다. 행궁의 주 건물인 봉수당과 붙어있는 장락당에 어머니를 모신다.'

을묘년 윤2월 10일, 이틀에 걸쳐 행궁에 당도한 정조는 행여나 어머니가 현릉원 참배를 하기도 전에 아프시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 행차 중 매번 말에서 내려 어머니에게로 가 안부를 묻고, 미음을 드리는 등 살뜰히 보살폈다.

지극정성 왕의 마음을 가슴에 꾹꾹 눌러 담고 길을 재촉한다. 현재의 위정자들과는 달리 국왕의 사재로 애민정신을 나눈 행궁을 떠나 장다리교로 향한다. 매교를 지나고 상류천(上柳川) 표석이 있는 세류동을 가로질러 목적지에 다다른다. 도시의 길은 정조의 효심과 개혁정신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루한 길이다. 창덕궁에서 행궁까지 63리, 행궁에서 현륭원까지 20리, 지금의 거리로 환산하면 110리다. 그중 난 45리 정도 되는 거리를 걸었다. 초록의 향기가 가득한 여름날,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했던 정조의 그 효행길을.





매교에서 내려다본 수원천변 풍경

전국 최초의 문화유산해설사, 윤규섭

이형복 | 수원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차장

"건강이 허락되는 한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유산해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은 매해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수원화성은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실학정신과 애민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이자 살아 있는 교육의 장소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최대 규모인 화성행궁과 장안문, 팔달문, 화서문, 창룡문 등 4대문과 부속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찬란한 선조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해설은 필수다.



윤규섭 문화유산해설사

전국 최초의 문화유산해설사

수원시에는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현재 55명의 문화유산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올바른 역사문화를 전달하는 해설사 중 최고령인 윤규섭(81) 선생. 큰 키의 호남형인 윤 선생은 2002년 문화유산해설사 제도가 처음으로 운영되던 시절부터 활동한 베테랑이다. 이전(1998년)에는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를 통해 수원화성 알림이 역할을 수행했다.

"전국 최초의 문화유산해설사란 점에서 뿌듯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수원화성)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수원화성 복원과 토박이의 자긍심

수원에서 태어나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 없는 윤 선생. 남원 윤 씨로 13대째 수원에 터를 잡고 있다. 조선시대 신도시로 조성된 수원은 오랜 종가가 많지 않은 편이다. 평양 조 씨와 파주 염 씨 등 몇몇 집안이 나름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2대조 할아버지가 김포에서 화성 정남(당시 수원)으로 이주하셨어요. 이후 7대조 할아버지가 지금의 율전동에 거주하셨구요."

그래서일까. 윤 선생은 대학 졸업 후 신풍초등학교와 매산초등학교 교사로 15년간 교직에 몸담았고, 이후 금융기관에 종사하면서 수원을 지켰다. 특히 수원화성 복원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기도 했다. 지난 1989년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사업추진본부장을 시작으로 1996년 '수원성축성 200주년 기념사업회' 사업본부장 직을 역임했다. 당시 이승원 시흥시 학예연구사와 서울대 규장각 등을 다니며 수원화성 복원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했다.



수원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윤규섭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습

수원화성 복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화성행궁에 자리 잡은 경기도립병원. 일제 강점기 왕이 머물던 행궁에 건립한 자혜병원이 전신이었다. 무엇보다 일제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거처했던 장락당 위치에 영안실을 설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문제는 경기도가 현재 봉수당의 위치에 건립한 경기도립병원을 7~8층으로 증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윤 선생은 당시 임사빈 경기도지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다른 지역으로 도립병원을 이전하도록 하고 화성행궁 복원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당시 심재덕 수원문화원 원장과 김동휘 보구산부인과 원장 등과 함께 화성 복원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력히 주장해 결국, 도지사의 승낙을 받았지요. 지금도 화성행궁에서 해설할 때면 감개무량해요."

수원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윤 선생의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렸다. 힘들었지만, 지금의 수원화성을 복원했다는 자부심과 후손들에게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원화성이 100% 복원된 것은 아니다.

"행궁 옆의 신풍초등학교 일부는 우화관 건물터로 요즘의 호텔과 비슷한 역할을 했죠. 유일하게 현존하는 낙남헌 인근에도 연못이 있었다고 해요. 행궁주차장은 주방



수원화성행궁 장락당에서 해설 중인 윤규섭 해설사

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있었구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행궁이 제 모습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원화성 해설의 즐거움

윤 선생은 해설을 하면서 그만의 노하우를 간직하고 있다. 연령대와 직업에 맞춘 눈높이 해설이다. 어릴적 미복원된 성곽에서 놀았던 추억과 수원화성 4대문 중 장안문만 공사실명제 글귀가 없는 이유,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장안문 누각, 방화수류정의 십자모양 문양 등등. 지루할 새 없는 꼼꼼한 해설은 수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역사적 교훈은 물론 문화도시 수원의 이미지를 한 단계 올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2년 후면 해설사로 입문한 지 20년이 되는 윤 선생.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마이크를 들고 관광객을 맞이하겠다는 각오로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를 만날 수 있는 수원화성 관광안내소

화서에서 시(詩)를 꿈꾸다

박설희 | 시인

막연한 동경이 현실로 되다

생전 처음 맞는 아파트의 밤은 너무 환했다. 주택이나 빌라에서만 살아왔던 나는 8층 공중에서의 잠이 낯설고 편하지 않았다. 33평 아파트는 너무 휑뎅그레했고, 어디선가 끊임없이 번쩍이는 불빛이 숙면을 방해했다. 그래도 내가 그리던 수원이 아닌가. 기대와 설레임으로 첫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1997년 봄, 화서주공 3단지에 입주했다. 잡지사에 재직할 때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수원에 발을 디딘 이래 십 년만에 드디어 수원 시민이 된 것이다.

주거지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로 선택되게 마련이지만 내 경우 막연한 동경도 큰 몫을 차지했음이 틀림없다. 서울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하자마자 안양에서 살았다. 안양에서의 7년 후 수원에 정착하면서 난 망설이지 않았다. 조금만 걸어도 성곽이 보이는 곳, 방화수류정과 화홍문이 있는 곳. 느낌을 믿는 나는 이



내가 수원에 자리 잡은 화서주공 3단지 모습

곳이 나의 거주지로서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었다.

당시 화서주공아파트 주변은 도시라기보다는 전원적인 분위기였다. 부곡역(의왕역)서부터는 온통 저수지와 논밭이어서 수도권에 사는 친척들이 우리 집에 오면 첫마디가 '완전 시골이네' 였다. 실컷 초록에 물든 눈으로 화서역에 내리면 이번에는 개구리 울음소리, 풀벌레 소리가 귀로 달려들었다. 더불어 벼와 푸성귀 냄새가 온몸 가득 스며들었다. 그동안 도회지에서만 살아온 나로서는 자연이 준 커다란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숙지산과 화서시장에서의 여가

근처엔 숙지산이 있었고, 숙지산 능선을 따라 천천히 걷다보면 팔달산과 연결되었다. 봄이면 진달래가 만개해 일곱 살, 네 살이었던 아이들을 데리고 숙지산이나 팔달산에서 진달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곤 했다.

아마 직장을 다니지 않았더라면 종일 산에서 아이들과 노는 것이 내 일과였을 것이다. 평촌의 입시학원에서 국어를 강의하던 나는 오후에 화서역에서 전철로 출근했다가 막차를 타고 귀가를 하기 일쑤였다. 밤늦은 시각 일호선 마지막 전철에선 온갖 풍경이 연출되었다. 주로 취객과 피곤에 절은 회사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내 등단작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숙지산에 진달래가 만개했을 때 찍은 둘째 딸의 어린시절

성격이 내성적이고 직장 생활이 팍팍했던지라 이웃 주민들과의 교류는 별로 없었다. 아이들을 돌봐주시던 친정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 대해 오히려 더 잘 아셨다. 802호 남편의 직업은 무엇이고, 102호는 내외가 교수라 하더라. 심지어 아파트 아이들의 특성까지 세세히 알았고 덕분에 마을 주민들에 관한 내 정보는

어머니의 덕을 많이 본 셈이다.

화서동에는 재래시장인 화서시장이 있었고, 걸어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다시 걸어서 집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 할머니들이 직접 재배한 푸성귀와 상인들이 파는 생선과 채소 등이 풍성했다. 알고 보니 화서시장은 수원에서도 물건 다양하고 값싸다고 소문난 곳이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었던 나는 주말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난 후 함께 군것질을 하는 등 시장 가는 길은 눈도 입도 즐거운 나들이가 되었다.

서호의 일몰

또 서호가 있었다. 지금이야 숙지중학교 부근에서 서호로 넘어가는 육교가 생겨 그리로 많이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아파트에서 서호에 가려면 화서역을 건너가서 농민회관 쪽 논두렁을 이용해야 했다.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좁은 길, 메뚜기가 튀어오르고 종종 개구리까지 튀어오르면 아이들은 기겁을 했다.

그러고 나서야 만나게 되는 서호는 사철 아름다웠다. 봄철 벚꽃도 아름답지만 가을 철새들의 군무, 설경도 아름다웠다. 농민회관 쪽에서 제방 쪽을 바라보거나 제방에서 농민회관 쪽을 바라보거나 각기 다른 멋이 있었다.

둘레가 약 2㎞인 서호는 정조대왕 당시 여기산 아래에 축조한 저수지로 원래



화서시장의 모습

'축만제(祝萬堤)'로 불리다가 화성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호라고 했다. 돗자리를 가지고 가서 한나절 놀다 오거나 운동 삼아 둘레를 두세 바퀴 돌다 오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름다웠던 것은 서호의 일몰이었다. 아름답다는 말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장렬하고 때로는 처연한 아름다움이 거기에는 있었다.

경기도립도서관의 추억

참, 경기도립도서관에서 만난 문우도 있었다. 당시 도립도서관에서는 문학창작 강좌가 무료로 열리고 있었다. 소설가가 꿈이었던 나는 35세에 소설을 쓰고 싶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 갔더니 그 학기엔 시창작 강좌만 있었다. 거기서 시와 인연을 맺고 결국 등단도 「장안문을 머리에 이고」란 시로 하게 되었으니 참 인연이란 묘한 것이다.

도립도서관 가는 길. 지금도 눈에 선한 그 길을 나란히 걸어갔던 같은 동 12층 주민이 있었다. 그것도 어느 날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고서야 주거지와 행선지가 같다는 걸 알게 된 일이지만. 일상의 자그마한 정을 나누는 이웃도 있지만, 문학에 관심 있는 이웃을 만나 함께 도서관을 다닐 수 있다는 건 행운임에 틀림없다. 그 덕분인지 난 2003년에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으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수원은 내 문학의 개화지였던 것이다.



시원하게 펼쳐진 서호 풍경

1970년대 수원성복원정화사업

조성우 | 수원화성박물관 전문위원

수원화성의 수난

1796년(정조 20) 정조의 개혁 의지로 축성된 수원화성은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수원화성은 우리 역사상 손꼽히는 성군인 정조와, 그 군주를 지략과 재능으로 보좌하던 명신(名臣)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백성들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유산인 수원화성은 격변의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위기를 겪었다.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했던 1910년에 '조선읍성철거시행령'을 선포하여 전국 약 300여 곳의 읍성을 철거하였고 곧이어 궁성도 철거하였다. 그로인해 화성행궁 역시 철거되어 그 자리에는 일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자혜의원이 지어졌으며 1913년에는 팔달문의 옹성과 문루가 철거되었다. 또한 1922년 기록적인 폭우로 북수문과 남수문 등이 무너져내렸으나 일제는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북수문은 수원의 유지들과 주민들이 앞장서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는 한편 끊임없이 조선총독부에



한국전쟁 직후 파괴된 동북공심돈의 모습(1950년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청원하여 간신히 복원되었다.

팔달문 동쪽에 위치한 남공심돈, 남암문, 남성적대, 남수문과 그 일대 성곽은 일제에 의해 시가지화(市街地化)되어 지금까지도 복원하지 못했다. 남수문만이 붕괴된 지 90년만인 2012년에 복원되었다. 한편 일제는 훼손된 수원화성을 방치하면서도 방화수류정과 북수문 만큼은 관광 명소로서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복원의 청원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한국전쟁은 수원화성이 겪은 가장 큰 수난이었다. 정조가 수원화성으로 원행을 올 때 제일 먼저 마주했던 화성의 정문인 장안문, 동문인 창룡문은 미군의 폭격에 의해 누각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것은 전쟁의 화마를 입은 우리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동북공심돈은 전쟁 때 붕괴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50년대 사진에서 보듯, 당시 우리의 참담했던 상황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문화유적 복원에 신경 쓸 여력도 의지도 없었다.

박정희 정권의 호국문화유적 복원사업과 수원화성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집권 후반기인 1970년대에 들어 정권이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자 본격적으로 문화재 보수·복원·정화 및 보호를 하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민족주의에 눈을 돌려 국난 극복과 민족 영웅에 관심을 가졌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인식이 혐오에 가까울 만큼 부정적이었던 박정희가 주목한 것은 국가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이었다. 따라서 문화재 복원사업의





한국전쟁으로 문루가 완전히 사라진 장안문(좌)과 창룡문(우)의 모습(1950년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초점은 국민의 단결과 총화로 인한 국난극복의 문화유적 복원에 맞춰져 있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북한과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우위 선점과 정권 후반기 미국과의 갈등,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주국방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실시된 문화재 복원사업은 '호국문화유적 복원사업'이라고 불렸다.


총탄 자국이 남은 장안문 안쪽의 현재 모습

호국문화유적 복원사업의 일환이었던 수원화성 복원사업의 정식 명칭은 '수원성 복원정화사업'이었다. 사업에는 총 32억 8천 6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이는 호국문화유적 복원사업 가운데에서도 서울성곽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예산 규모였다. 수원화성 복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된 데에는 수원의 국회의원이었던 이병희의 역할이 컸다.

이병희는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10대 국회의원까지 계속 연임하였고, 이후 공백기를 가졌다가 13, 15대 국회위원에 당선되어 7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는 박정희 재임기 내내 수원시의 국회의원이었으며 집권당인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김종필과는 육사 8기 동기였다. 두 사람은 서로 친분이 두터워서 박정희 정권기에 권력의 핵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때문에 경기도청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선경합섬 등의 기업을 수원에 유치할 수 있었으며 박정희에게 수원화성 복원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복원사업을 허가 받았다.


서장대에서 본 화서문(1950년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사업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구간을 나눠서 실시되었다. 장안문의 중층문루와 창룡문의 문루, 동북공심돈 등의 시설물은 물론 곳곳의 성벽과 여장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으나 아쉽게도 화성행궁과 남공심돈 일대 등 일부 시설물은 여건상의 이유로 복원할 수 없었다. 수원성복원정화사업의 각 단계(년도)별 복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원성복원정화사업의 내용

단계(년도)	구 간	복원 시설물	보수 시설물
1단계 1차 (1975)	장안문~서장대	여장 1,163m, 장안문, 북서포루, 북포루, 서북각루, 서일치, 서포루, 서이치	북서적대, 화서문, 서북공심돈
1단계 2차 (1975)	서장대~팔달문	여장 1,103m, 서포루, 서삼치, 서남암문, 서남일치, 서남이치,서남각루, 남포루, 남치	성곽 90m, 서장대, 서노대, 팔달문
2단계 (1976)	화홍문~창룡문	여장 816m, 동북포루, 동암문, 동장대, 동북공심돈, 동북노대, 창룡문	성곽 182m, 북암문동북각루
3단계 (1977)	장안문~화홍문	여장 298m, 북동포루, 북동치	북동적대, 북수문
4단계 (1978~79)	창룡문~동남각루	여장 1,086m, 동일포루, 동일치, 동포루, 동이치, 봉돈, 동이포루, 동삼치, 동남각루	성곽 160m

수원화성 복원에 대한 평가

박정희 집권 때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평가교수단'은 호국문화유적 복원사업 중에서도 수원화성의 복원이 다른 유적에 비해서 충실히 복원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유적지 보다 수원화성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고적도보』, 『수원군읍지』, 일제강점기부터 고건축의 해체·보수를 맡았던 이한철과 임천이 그린 도면 등의 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화성 축성의 과정을 충실히 담은 조선시대의 건축 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정권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수주의적 시각과 국가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인지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수원화성은 이때의 복원사업으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다.

잃어버린 수원을 찾아서

정해수 | 목원대학교 국제문화학과 교수

희미해져가는 수원의 추억

프랑스에서 학위 취득 후 돌아온 내 고향 수원은 낯설었다. 전엔 없던 아파트 숲이 나를 숨 막히게 만들었다. 사춘기시절 오갔던 남문 주변에는 수원 내음은 오간 데 없고 대신 이방인의 묘한 내음이 풍겼다. 팔구년 타국살이에 동무들과도 소원해졌다. 이래저래 나는 수원 토박이지만 이방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위는 얻었으되 잃어버린 것이 더 많았다는 생각을 지금도 떨칠 수 없다.

2000년대 초 영남대학교에 직장을 얻으면서 특별한 일 이외에는 상경하지 않아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일이 뜸해졌다. 보통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고향 수원에서 뿌리박고 살기를 원했다. 하지만 대전으로 직장을 옮긴 지금도 본의와 달리 부평초같이 살게 되었다. 수원과 수원을 배경으로 한 경험이 조금씩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당연한 현상이겠으나 연대기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뇌에 저장되었던 기억이 점차 희미해지다가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잃어버린 수원을 찾아

그런데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 마르셀이 어느 날 마들렌느 과자를 차에 적셔 베어 물자 어린 시절 콩브레의 고모 집에서 맛보았던 마들렌느의 맛과 더불어 콩브레에 대한 기억을 고스란히 되살리는 놀라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언제부터인가 나른한 봄날 연구실 창가 햇살이 뺨을 간질일 때면 학창시절이 영화의 장면들처럼 펼쳐지곤 한다. 특히 유신고등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여전히 설렐 만큼 흥미진진해 다시 되돌아가고 싶을 지경이다.

갓 입학한 1978년 3월 첫 날 나는 큰 키 탓에 창가 쪽 맨 뒷자리를 배정받았다. 나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햇살을 즐기며 급우들이 서로를 탐색하며 교감하려는 분위기를 재미있게 바라보았다. 동료들은 대부분 선해서 학급 분위기가 소란스럽지 않았다. 당시 수원은 비평준화지역이었다. 특히 모교는 영화 「얄개」 시리즈의 무대라는 이유와

재단의 대대적인 홍보사업으로 널리 알려졌고 전국의 내로라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입학했다. 720명 모집에 3분의 2가 지방 출신이었으니 촌놈들의 학교였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실제로 방학을 이용해 방문했던 한 친구의 본가는 버스도 잘 다니지 않던 오지에 있었다. 무뚝뚝한 친구 아버님이 큼직한 돼지 뒷다리 하나 가지고 오셔서 빙긋 웃으며 다 먹고 가라 말씀하시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런 시골 출신 녀석들에게 맨 뒷자리에서 한가로이 몽테뉴의 『에세이』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던 내가 신기해보였나 보다. 화장실 다녀오면 몇 녀석이 번갈아가며 내 책을 뒤적였으니 말이다. 조금이라도 학업을 게을리하면 금방 성적으로 나타나는데 햇살 받으며 교과와 무관한 책을 여유롭게 읽는 내가 희한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남문 거리를 접하고서도 일종의 문화충격을 경험했다. 서울을 자주 오갔던 나에게 규모면에서 수원은 보잘 것 없었지만 동기들은 이 도시를 신세계로 여기곤



유신고등학교 전경

했다. 나도 부모 품을 떠나 홀로 생활하는 시골 출신 동기생들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요즘 열 예닐곱밖에 되지 않는 고 1짜리 아이들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 생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야망 가득한 친구들의 모임

동기생들은 서로를 존중했기에 화합이 잘 되었다.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기들은 관심사나 성향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뉘었다. 나와 어울린 동기들은 공통적으로 강한 야망을 품고 있었다. 『적과 흑』의 주인공이 지닌 과도함과 비도덕성을 제외한다면 동기들은 쥘리엥이나 다름없었다. 세상 모든 이를 친구로 만들려는 야망, 사업으로 성공하려는 야망, 군인으로 출세하려는 야망, 그리고 학문으로 성공하려는 야망이 어우러져 꽤 독특한 모임이 되었다.



아주공과대학·유신고등학교의 스쿨버스 모습(1970년대 후반)

우리는 주말이면 종종 원천유원지나 과수원이 있던 산드레미를 찾았다. 호숫가를 산책하거나 원두막에서 과일을 나눠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수다는 아니었다. 서로 논리의 허점을 짚는 치열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지적 훈련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으리라. 친구 만들기에 열중했던 김영기 사장은 바쁜 가운데서도 엄청난 독서를 통해 동아시아 역사와 사상은 물론 여러 종교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의 경지에 올랐고, 사르트르가 사망했다고 비통해했던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는 세계적인 학자로 우뚝 섰으니 말이다.

내 기억속의 수원을 재현할 날을 꿈꾸며

내 과거의 수원은 이제 없다. 정겨웠던 지동시장도, 막걸리와 빈대떡을 팔던 충남집도, 북적였던 남문거리도, 원천유원지와 산드레미도 사라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연어처럼 수원으로 회귀하곤 한다. 옛 수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왜일까? 프루스트처럼 나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방랑하는 것은 아닐까?

노스탤지어. 제임스 조이스는 그래서 더블린을 배경으로 『더블린 사람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율리시즈』 등의 작품을 잇달아 썼으리라. 그도 대학 졸업 후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를 떠도는 가운데 작품을 쓰면서 더블린 구석구석을 핥고 되새김질 했으니 말이다. 조이스의 기억력과 필력에 비할 수는 없지만 나도 내 수원을 재현해 볼까?

수원연극축제,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

정다미 | 수원문화재단 축제기획단 대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2015 수원연극축제가 5월 1일부터 5일까지 총 5일 동안 수원화성행궁광장, 광교호수공원, 수원SK아트리움 등 수원 일대에서 펼쳐졌다.

올해부터 〈수원연극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함께하는 하나의 축제라는 의미를 담은 EI를 개발하는 등 축제의 통합된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여 8만5천여 명의 관람객들과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

스페인 마요르 광장의 거리축제를 수원에서 만나다

이번 수원연극축제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스페인의 대표



극단 불의 전차의 「발리언트 왕자」

거리극 단체인 극단 불의 전차(Carros de Foc)가 새롭게 제작한 10m의 대형 마리오네트 인형과 길이 21m의 용 인형 등을 활용한 「발리언트 왕자(Prince Valiant)」를 세계 초연으로 선보였다. 또한 전 세계를 아울러 불과 불꽃 분야에서 독보적인 대규모 거리극 단체로 손꼽히는 작사 씨어터(Xarxa Theatre)가 아시아 초연으로 「평화의 제단(Ara Pacis)」 시리즈를 광교호수공원과 행궁광장에서 공연하였다. 전 세계 40여 개국을 누비며 불꽃을 활용한 대규모 거리공연을 진행한 작사 씨어터는 예술불꽃의 진수를 보여주어 많은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다양한 이야기가 가득한 동심의 세계로 떠나다

이번 수원연극축제에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동화(童話)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

올해 개막작은 연희단 거리패의 「안데르센」으로 안데르센의 명작동화 「미운오리새끼」, 「쓸모없는 여자」, 「길동무」, 「인어공주」, 「성냥팔이소녀와 놋쇠병정」 등 5편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어 어른과 아이들 모두를 아우르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어 따뜻한 공연이라는 평을 받았다. 마당극패 우금치의 「청아 청아 내 딸 청아」는 심청전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진정한 효의 의미를 담아 마당극 특유의 풍자와 해학의 장을 펼쳤다.


개막작 연희단거리패의 「안데르센」

해외 초청작으로 지난해 「내추럴 스피릿」을 통해 대형 인형과 환상적인 아크로바틱을 선보여 끊이지 않은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이끌어 냈던 극단 불의 전차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10대 연재만화인 해롤드 포스터(Harold Foster)의 작품을 기반으로 창작한 「발리언트 왕자」를 선보여 대형 마리오네트 인형이 주는 웅장함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또한

대만 송송송 어린이인형극단의 「미운 오리새끼의 모험」과 폴란드 올라 무친(Ola Muchin)의 마임과 마술 인형극인 「쿠쿠리쿠」는 관객들과 근거리에서 소통하며 함께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독 콜라보레이션 공연인 「슈바르츠발트 왕자」는 국내 극단 벼랑 끝 날다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프로젝트팀이 준비한 작품으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남서부 산악지역인 슈바르츠발트가 물에 잠기면서 물속 왕국과 육지에서 벌어지는 옛이야기를 토대로 제작한 현대동화음악극으로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을 몽환적인 분위기로 가득 메웠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축제를 즐기다

이번 수원연극축제에는 수원생활연극축제가 신설되어 주부, 실버, 다문화, 청소년 등 수원을 사랑하는 생활연극인들로 구성된 극단 모아 등 10개 극단이 참여하여 인형극, 독백공연, 뮤지컬, 정극 등 다채로운 장르로 구성된 공연을 선보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올해로 3회를 맞으며 명실공히 연극제의 대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시민희곡낭독을 빼놓을 수 없다. 올해는 「패러디 심청전」, 「별주부전」, 「TV동화 행복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인 시민희곡낭독 공연 모습

세상」, 「맹진사댁 경사」 등 4개의 작품에 시민 25명이 참여하여 자신의 끼와 열정을 뽐냈다.

더불어, 작년에 이어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수원 인근 10개 대학이 참여한 〈대학연극페스티벌〉이 연계 행사로 진행되었다. 젊은 연극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재기 발랄함과 함께 연극의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작품들이 수원SK아트리움과 KBS 수원아트홀에서 진행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다

이번 수원연극축제에는 예술불꽃과 조명쇼가 축제의 밤하늘을 가득 채웠다. 스페인의 예술불꽃 공연인 「평화의 제단」을 비롯해 국내 공연 단체인 예술불꽃 화랑의 「공무도하가-화희낙락(火戱樂樂)」이 함께하여 새로운 형식의 불꽃 공연을 통해 축제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또한 매일 저녁 9시부터 15분간 진행된 조명쇼 「수원 아켄수스(Accensus)」는 불꽃 퍼포먼스와 더불어 수원의 중심 팔달산을 화려하게 변신시켰다. 역동적인 음악과 함께 팔달산을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었다.

2015 수원연극축제는 올해 19회를 맞아 스페인을 비롯해 독일, 폴란드 등 5개국 6개 해외작품과 15개의 국내작품 그리고 10개의 대학연극과 4편의 시민희곡낭독, 10편의 수원생활연극 등으로 풍성했던 5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설문조사 결과 수원지역 외 방문자 비율이 43.2%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로의 위상을 지킨 수원연극축제가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예술불꽃 화랑의 「공무도하가-화희낙락」



팔달산을 수놓은 조명쇼 「수원 아켄수스」

행복한 칠보산마을 공동체, 금호동의 마을만들기

김장선 | 경기신문 문화체육부 기자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이나 도시를 문화와 복지,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마을 공동체 시민운동인 '수원 마을만들기'(마을르네상스) 사업.

행정에서는 마을만들기추진단, 민간에서는 마을르네상스센터라는 지원 조직이 만들어져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수원의 많은 마을 공동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시작한 공동체는 손 안에 들 정도로 찾아보기 드물다.

이 중 수원 금호동 마을만들기 공동체 중 하나인 '행복한 칠보산마을 공동체'(이하 칠보산마을)는 무려 15년의 역사를 가진 뿌리 깊은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칠보산마을은 예로부터 산삼·맷돌·잣나무·황금수탉·호랑이·사찰·장사·금의 8가지 보물이 많아 팔보산으로 불리다가 황금수탉이 없어져 칠보산이 됐다는 칠보산 자락에서 10여 개의 교육·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칠보산마을 걸개

공동체의식에서 비롯된 '칠보산마을'

1998년 11월, 수원시내와 조금 떨어져 있는 칠보산 자락에 3천2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도심 속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던 사람들이 이 곳에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곳이 필요해졌다. 당시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터라 의견이 맞는 부모들이 모여 공동육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칠보산마을 탄생의 첫 시발점이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2001년, 10여 가구 부모들이 운영하는 〈사이좋은 어린이집〉이 생겼고, 이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출자금을 모아 별도의 독립공간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다음 해인 2002년 〈사이좋은 방과후 학교〉가 만들어졌다. 또 2005년 3월에는 9가구 12명이 모여 초등대안학교인 '자유학교'도 세우게 됐다.

칠보산마을의 교육은 이처럼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아닌 마을에서 키운다'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됐다. 공동체라는 공감대는 큰 힘으로 작용했고, 마을 곳곳에서 재능기부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은 더욱 풍성해졌다.

교육 공동체의 틀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교육을 벗어난 문화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역전통가락을 보존하기 위해 칠보농악전수회가 생겼고,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둠벙 등은 교육을 벗어나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로 뭉쳐볼까'라는 발단에서 생겨난 공동체들이다. 특히 제초제 농약 때문에 인근 논에 두꺼비들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두꺼비논 펀드〉는 논 주인과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주민들이 전량 수매를 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함께 하고, 아이들의 공연과 시낭송 같은 즐거운 행사도 곁들여 마을축제로 승화되는 계기가 됐다.



마을 극단의 공연 모습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칠보산마을의 친환경 로컬푸드 반찬가게인 칠보꽃밥상

교육·문화 공동체 활성화

칠보산마을은 2009년 1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자연스레 마을 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0년 한살림 연구소 '모심과 살림'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었고, 자유학교 학부모들이 〈마을신문을 통한 마을만들기〉라는 주제로 당선됐다. 이를 계기로 2011년 〈칠보산마을신문〉이 탄생하게 됐다. 칠보산마을신문은 문화 공동체의 과제였던 공동체적 가치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만들어 가게 됐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2012년에는 호매실택지로 개발된 마을의 구도심을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수렴해 주민문화공간 〈칠보문화놀이터〉가 생겨났다. 이를 통해 마을에 극단이 만들어지고, 일본이야기, 한땀공주, 매주 금요일 밤 부부동반 탁구모임 〈금탁〉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생겼다. 〈칠보문화놀이터〉가 구도심 활성화에 물꼬를 튼 것에 이어 2013년에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과 함께 구도심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칠보산마을학교〉가 운영됐다.

2014년에는 수원시에서 각 동에 마을계획단을 꾸려 마을의 목표 이미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경연대회 식으로 진행됐으며, 당시 금호동이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금호동 마을계획단이 세운 계획을 실현할 구조로 〈칠보산마을연구소〉가 생겼다. 이 곳에서는 마을계획단에서 세운 미래상을 주민들과



칠보논놀이터_에서 모내기 때 새로 만든 둠벙에 미꾸라지를 넣는 모습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그간 교육·문화 공동체 중심으로 이뤄졌던 활동을 일반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공동 텃논 〈칠보 논 놀이터〉, 공동 텃밭 〈맑음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마을의 옛이야기를 수집·기록하고자 어르신들에게 옛이야기 듣는 〈칠보학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박물관 홈페이지를 제작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칠보산마을 공동체는 1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칠보산 마을의 시초가 된 공동 육아 협동조합 〈사이좋은 어린이집〉과 〈사이좋은 방과후〉, 대안학교인 〈자유학교〉 등 교육공동체를 비롯해 〈도토리교실〉, 〈금호한살림햇살모임〉, 〈칠보농악전수회〉, 〈청소년 공부방〉, 〈마을신문〉, 〈칠보꽃밥상〉, 〈마을연구소〉 등 교육문화공동체들이 연합돼 있다. 또 이 곳에서 줄기를 뻗은 〈민들레읽기〉, 〈아카펠라〉, 〈전통주빚기 모임〉 등 동아리 성격의 모임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아이를 칠보산자유학교에 보내면서 마을 주민이 됐다는 이계순(41·여) 마을신문 편집장은 "1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칠보산마을도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라며 "뿌리 깊은 나무가 강한 비바람에 꺾이지 않듯 마을 사람들이 지금처럼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 된다면 수원시의 대표 모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칠보산마을연구소의 〈칠보 논 놀이터〉 회원들의 모습

문화원이 할 일

2015 수원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원시를 대표하고 알리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접수가 6월 17일(수)~19일(금) 3일간 수원문화원에서 진행된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원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담아낸 참신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시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입상작들은 수원시 관광기념품 판매소와 국내외 행사에서 전시·판매된다.

공모는 제품 분야(완제품)와 아이디어 분야(시제품)로 나눠, 전통문화상품·생활문화상품·여행문화상품을 공모한다. 응모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은 수원시 및 수원문화원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 제품 설명 및 상품화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제품과 함께 수원문화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작은 6월 26일(금) 심사를 거쳐 6월 30일(화) 2015 수원시 관광기념품으로 최종 선정된다.

※ 수원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www.suwonsarang.com
※ 문의 : 수원문화원 031)244-2161~3

제12회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정조(正祖, 1752~1800)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융릉 참배를 위해 서울에서 수원까지 행차한 길을 청소년들이 직접 걸어보는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가 7월 26일(일)~29일(수)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서울 창덕궁을 출발해 한강을 건너 과천을 지나 수원으로 가는 능행길은 총 62.2㎞의 길을 도보와 버스로 이동한다. 전국에서 선발된 초(2004년 출생자까지)·중·고등학생 200명의 순례단은 능행길 체험을 통해 정조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창덕궁·노량행궁·과천행궁·지지대비·융릉·수원화성을 지나며 우리 문화유산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체험 행사이다.

6월 8일(월)~14일(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6월 18일(목) 18시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 참가비 : 1인 13만원
※ 문의 : 수원문화원 031)244-2161~3

바로잡습니다 · 2015년 봄호 「협궤열차 수인선(水仁線), 낭만을 추억하다」에서 39쪽 중간제목 '수인선, 추억을 만나다'를 '수인선, 예술선로 위로 부활하다'로 바로잡습니다.

수강생 모집 안내

문화학교

NO	문화학교	요일	강의시간	지도
1	경기민요반	화·금	11:00 ~ 12:30	김옥자
2	규방공예반	화	14:00 ~ 16:00	나정희
3	노래부르기반	목	10:00 ~ 12:00	유진표
4	도자기공예반	수	14:00 ~ 17:00	박준수
5	맥간공예반	월	13:00 ~ 15:00	이수진
6	모듬북반(초급)	화·목	09:00 ~ 11:00	김옥기
7	모듬북반(중급)	화·목	(화)12:40~14:40 (목)11:00~12:40	김옥기
8	사물놀이반	월·금	15:00 ~ 17:00	김현수
9	서예반	수	10:00 ~ 12:00	안효영
10	서예반(장안구 분원)	월	10:00 ~ 12:00	김진숙
11	전통의상(한복) 만들기반	월	14:00 ~ 17:00	이성섭
12	태평소반	화	19:00 ~ 21:00	이한영
13	하모니카반	수	13:30 ~ 15:30	김혜숙
14	한국무용반	월	10:00 ~ 12:00	여지영

동 아 리

NO	동아리	요일	모임시간
1	문미회(유화)	목	10:00~
2	비르투오조	화·금	10:00~13:30
3	수원·화성소리사랑	목	13:00~15:00
4	난장(전통창작타악)	화·목	15:00~17:00
5	짓(한국무용)	수	10:00~12:00
6	애채(태평소)	수	19:00~21:00
7	한땀두땀 우리한복	금	14:00~17:00
8	소리뜰(하모니카)	목	13:00~15:00
9	We 앙상블(오카리나)	월	10:00~12:00
10	Funny 우쿨렐레	수	13:00~16:00
11	사계절 봉사회	둘째,넷째 목	10:00~

고색향토문화전시관

NO	문화학교	요일	강의시간
1	캘리그라피반	수	14:00~16:00
2	맥간공예반	금	10:00~12:00

수원민속예술단

요일	시간
월	13:00~15:00

수원문화원 산악회

요일	시간
둘째주 토	07:00~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 출발)

수원문화원 가족마당
http://cafe.daum.net/suwon110

▶ **모집방법** : 수시 / 방문 접수
▶ **수 강 료** : 분기별 30,000원
회 비 : 분기별 15,000원

▶ **문의전화**
수원문화원 031) 244-2161~3
고색향토문화전시관 031) 292-2161~2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랑 놀자!

국내 주요 문화시설 최대 1800곳 참여

'문화가 있는 날'이란?

영화관을 비롯한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에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다함께 **문화랑 놀자!**

2015년 이번 여름, 문화가 있는 날은?

6월 24일, 7월 29일, 8월 26일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문화가 있는 날**'을 검색해 보세요!

MEMASU 문화가 있는 날 검색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은 네가 밥을 사라.
영화표는 내가 산다!

둘이서 영화를 볼 때면 우리는 밥을 사거나
영화 표를 사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표를 사는 쪽을 추천한다.
만원으로 2명이 영화를 보는 마법이 펼쳐질 테니!

영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저녁 6~8시 8000원 → 5000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가볼 텐가?!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렇다면 미(美)란 무엇인가.
모든 정답은 그 곳에 두고 왔으니…
후후… 한번 찾으러 가볼 텐가?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 · 미술관
할인 및 무료



아들아, 오늘은 아빠가 쏜다!

가업처럼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응원하는 팀이다. 자, 당신의
응원팀을 자녀에게 전해줄 기회가 왔다.
함께 가자! 경기장으로!

스포츠

초등학생이나 더 어린자녀와 부모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프로야구
관람료 50%할인



궁에서 온 그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아… 왕처럼 살고 싶다…….'
그럴 땐 고궁에 들러 왕의 기분을 내보자!
왕에게 누가 입장료를 받겠는가!
이리 오너라! 주상 전하가 납신다!

문화재

경복궁, 창덕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무료**



공연 보러 가보자~♬

분위기 있는 공연장에서 다양한
공연을 즐겨보자. 내로라하는 주요
공연장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니.
좋아, 오늘 밤은 이걸로 정했다!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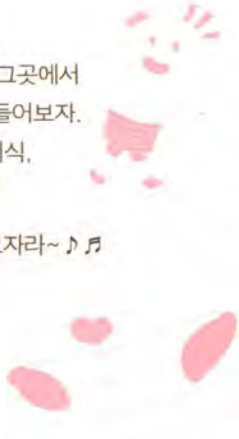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공연 할인



당신이 있는 곳에
문화가 있다!

집, 학교, 회사,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나만의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들어보자.
거리 공연, 프리마켓, 문화 회식,
재능 기부, 작은 운동회……!

문화가 있는 날, 24시간이 모자라~♪♬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안녕! 우리말

우리의 얼굴인 말과 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꽃필 수 있도록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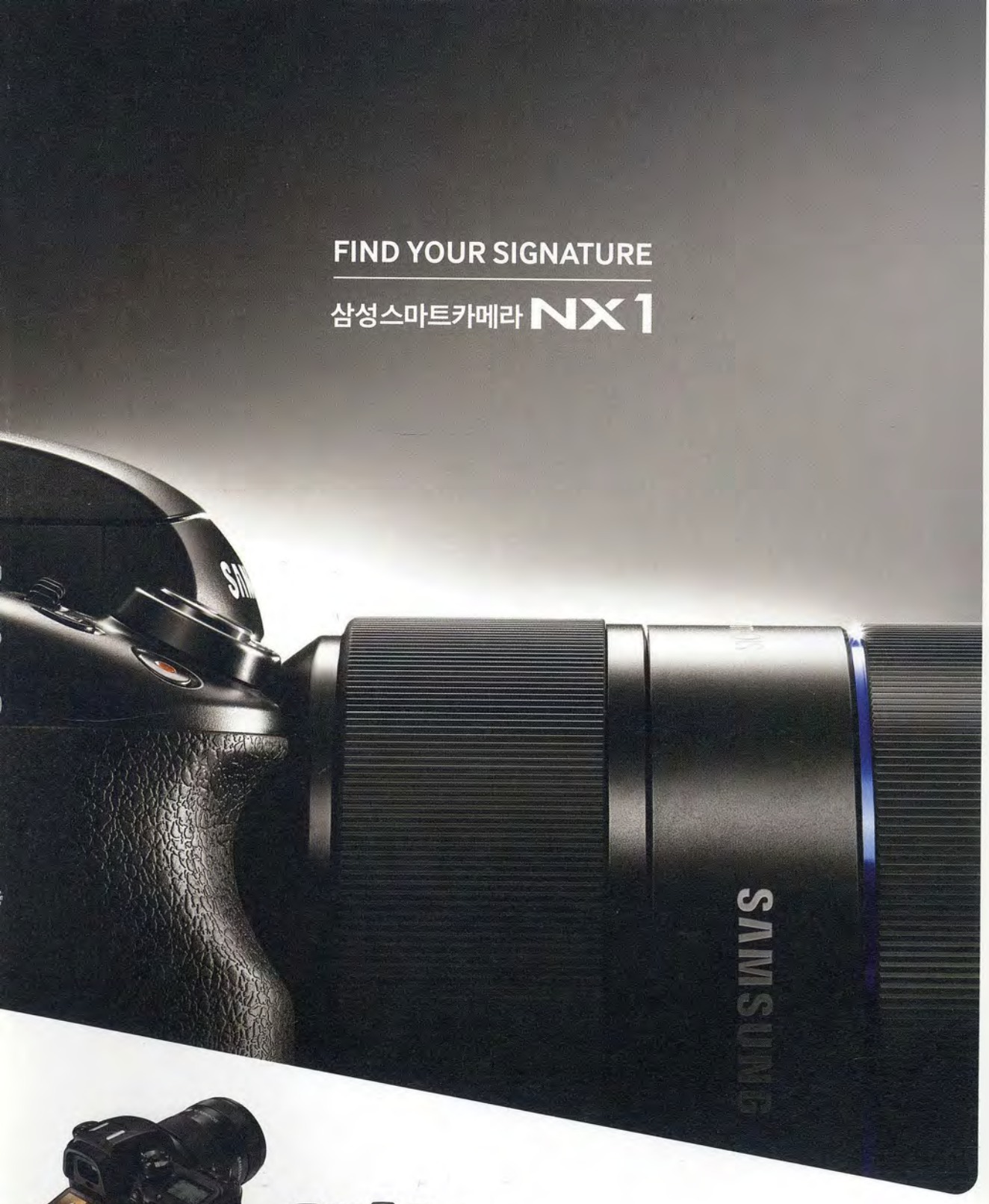
공공언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쉬운 언어 쓰기 운동 추진, 지역·민간 부문의 확산 지원

방송·인터넷 언어
공공의 책임 의식을 기반으로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위한 언어 의식 개선 운동 추진

청소년 언어
성숙한 언어 환경(가족, 학교, 사회) 조성과 배려의
언어 가치 교육을 기반으로 즐거운 언어문화 운동 추진

FIND YOUR SIGNATURE

삼성스마트카메라 NX1





삼성스마트카메라 NX1

• 2,820만 화소 BSI CMOS 이미지 센서 • 초고속 연사(초당 15fps)와 초고속 AF(0.055초) • 고화질 4K/UHD 동영상 촬영 • 견고한 마그네슘 합금 바디

•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를 참조하세요.

삼성전자 SAMSUNG

힘내라! 대한민국
I Love KOREA

평생 함께 하는 은행
IBK기업은행이 국민 모두의 희망을 지켜갑니다



IBK기업은행의 새로운 얼굴, '희망로봇-기은센'을 소개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평생파트너로, 평생 당신곁에서 소중한 희망을 이뤄줄 새로운 캐릭터입니다.